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

파견기간 : 2010.07.01~2010.07.31

학 부(과) : 기계정보공학부

성 명 : 박도형

학 년 : 3

긴 시간에 걸쳐서 간 미시시피 대학교 역시 미국이라는 나라답게 학교 규모도 크고 캠퍼스도 아름다웠습니다. 처음에 도착한 후 이곳의 큰 나무와 드넓은 푸른하늘 그리고 눈앞에 있는 듯한 구름들 정말 미국이 이래서 좋구나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도가 넘어서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모든 학교건물은 에어컨이 빵빵하여 추울 정도여서 더워서 고생했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겠지요. 아무튼 에어컨 덕분에 시원한 캠퍼스 삶을 살았지만 더불어 밤에는 추위에 벌벌 떨어야 했습니다. 일정에 있던 투펠로 쇼핑은 3주뒤로 미뤄져서 담요와 이불은 구입을 하지 못했지요 ㅠ.

예정과 달리 미국인과 룸메가 되지못하고 진호랑 룸메이트가 되서 IEP담당자인 쉐리에게 따져서 새로운 룸메인 엘리슨 브라운이라는 약학전공인 흑인친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 흑인이라 어색하고 다가가기 두려웠지만 오히려 백인들보단 흑인들이 더 인갑답고 다정하고 친절하다는걸 이곳에 와서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흑인을 봐도 낯설지 않고 정겹습니다.



이곳에서의 식사 정말 관리하지 않으면 살이 찢정도로 푸짐하고 또 맛도 훌륭했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줘서 먹은거지 한끼에 10달러의 고가의 식사였더라구요. 그래도 밥 굶지않고 미국에서 잘 지낸것 같습니다.

IEP의 수업은 정말 좋았습니다. 외국인 선생님들도 친절하고 수업방식도 우리나라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나라는 주입식의 교수자 중심의 교육인데 반하여 이곳의 교육은 상호 관계가 필수입니다. 선생님이 학생에게 질문을 주고 학생은 대답을 하고 저는 그런 방식의 수업 자체가 새롭고 또 맘에 쏙 들었습니다. 교직이수를 하는 저에게는 이 곳의 어학연수가 어학의 증진만이 아닌 교직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체험이었습니다.

단하나 IEP수업에서 아쉬웠던 것은는 그래도 어학연순데 반학생 14명중에 12명이 한국학생인 것입니다.

아무래도 다들 여름에 많이 어학연수를 가지만 이진 좀 너무했습니다. 사실 좀 비싼 영어회화 학원을 온 느낌이랄까요 한발대 계명대 한기대 ㅎㅎ 뭐 그래도 한국학생들이 있어서 심심하지 않은 어학연수긴 했지만 그래서 더 많이 영어를 못 쓰고 온것 같아서 아쉬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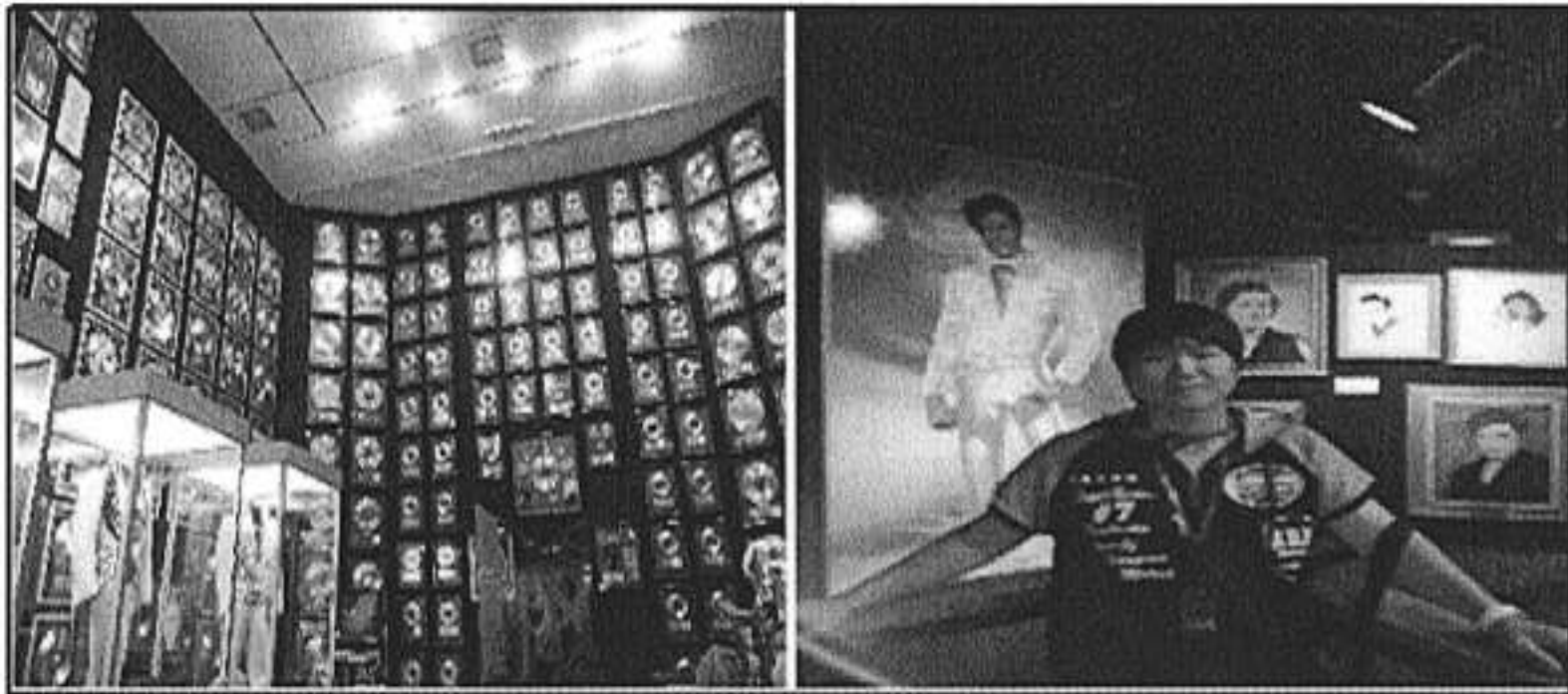
이곳에 와서 전 7키로가 빠졌습니다.

와우~ 처음에는 살이 찌면 어쩌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였지만 이곳의 체육시설이 정말 좋았고 또 외국인들은 같은 동료ja 아니여도 먼저 말을걸고 또 같이 운동을 하는 정말 매일매일 운동을 하면서도 여러 외국인들과 같이 운동을 해서 재밌고 또 그덕분에 영어도 많이 쓴거 같아서 보람찼습니다.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요 같은동료가 아니면 내쫓는 한국인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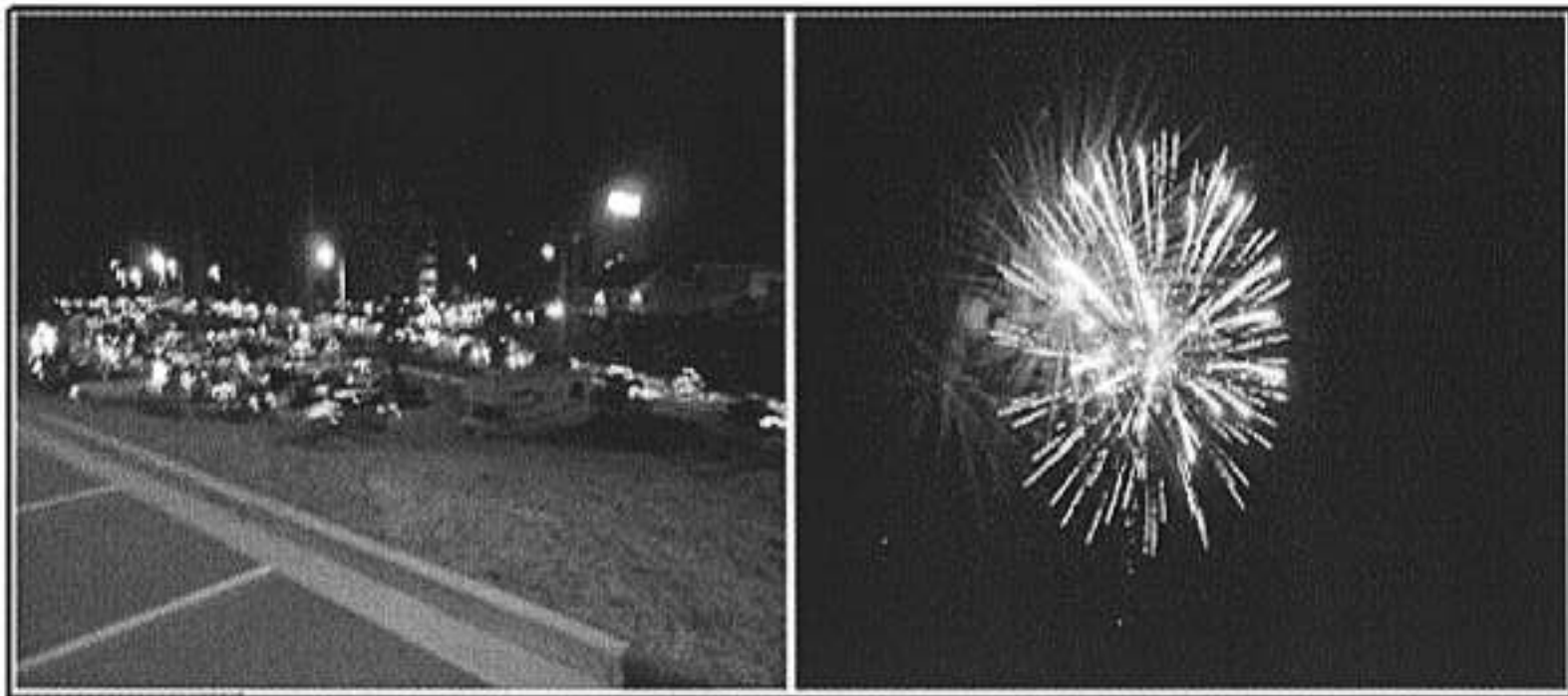
수요일과 주말에 있던 야외활동은 정말 유익했습니다.

멕시코 음식을 먹고 불링장에서 외국아이들과 불링을 치면서 친해지는 계기가 되었고 엘비스 프레들리의 집을 가서 아름다운 집과 엘비스의 음악을 들을 수 있었으며 미국영화관에서 자막이 나오지 않는 미국영화보기 ㅋ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미국의 독립기념일 행사가있었는데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사람들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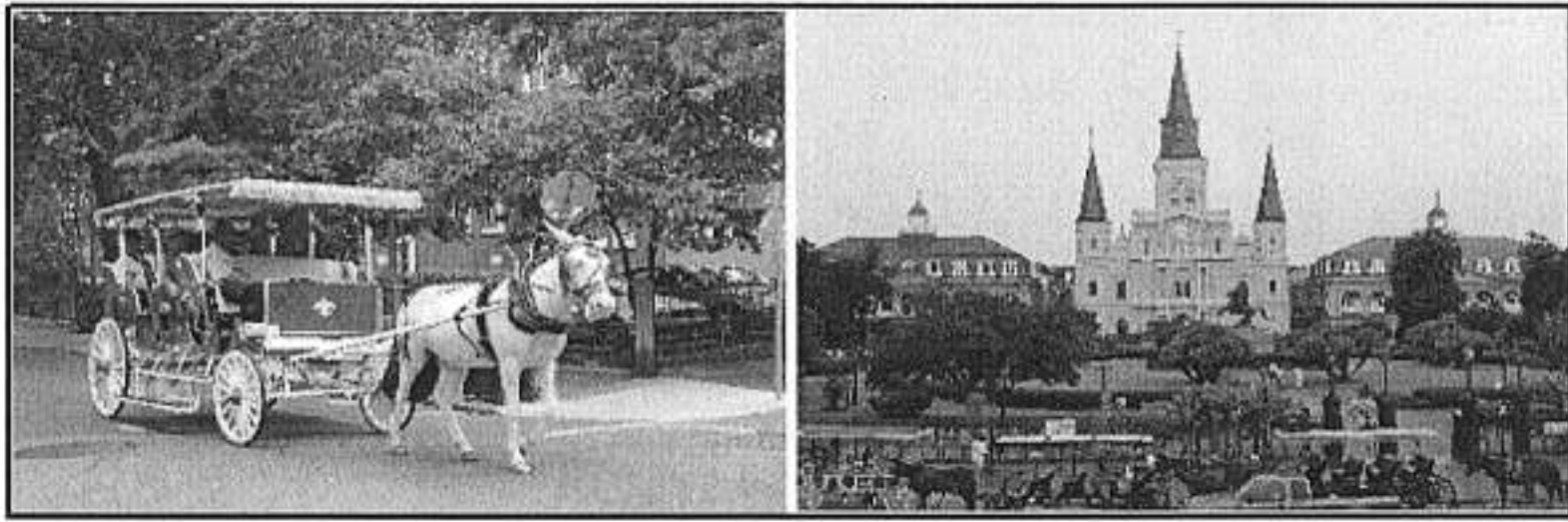


독립기념일을 쟁기고 축하하며 나라에 대한 애국심을 키우는 것을 보고 독립기념일을 소홀히 여기는 우리나라사람들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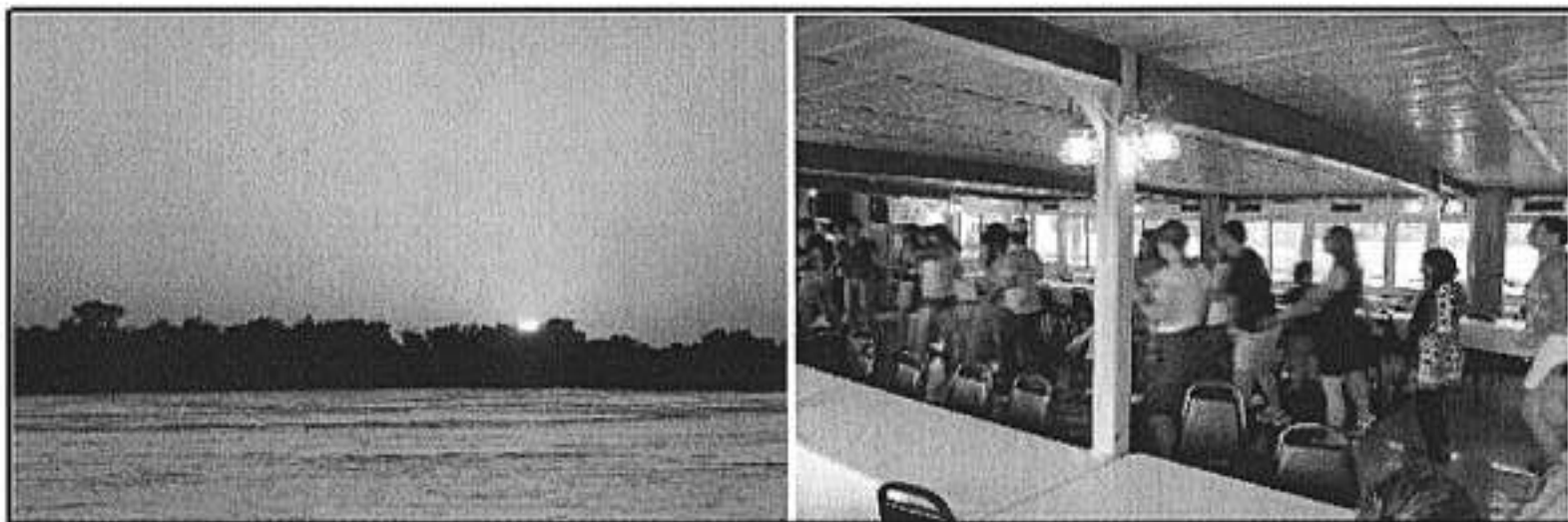


한국에서 받은 일정표에는 정말 제일 기대했던 뉴올리언스 트립이 있었습니다. 제즈 도시라 정말 흥미로웠고 허리케인이 지나간 관광지도 있다고 해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미국에 오니깐 일정이 취소가 되어 있더라구요 조금은 실망은 하였지만 저희학교는 이미 돈이 지불이 된 상태라 하여 트립을 다시 가게되서 정말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기대했던 바와 달리 뉴올리언스 트립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저희를 전혀 고려하지않은 일정과 자기들은 테러블하다고 참여도 안한 고스트 트립.. 하루종일 말뚱냄새를 맡으며 같은곳만 뱅뱅 돌았습니다. 허리케인 흔적이며 유명한 제즈 클럽은 가지도 않았지요. 또 인솔자들이 시간을 지키지않아 쇼핑계획이 1시간 30분이나 단축되서 2시간바깥에 쇼핑을 하지못한점도 조금 못마땅했습니다.

다음 어학연수에는 뉴올리언스 트립은 빼는것이 금전적으로 시간적으로 좋을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멤피스에서 미시시피강을 유람하는 유람선 경험이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배위에서 IEP 선생님들과 같이 춤추고 저녁식사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강위에서 놀아본 것 같습니다.



건의 할 것이 있다면 계명대 학생들은 비자를 받지 않고 왔습니다. 입국할때 자매 결혼을 해서 어학연수를 하러온게 아니라 견학을 하러 왔다고 하고 왔더군요. 저희도 다음부터는 굳이 f1비자를 받지않고도 충분히 올수있는것 같습니다. 다음어학연수에는 참고하는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조금은 부럽더라고요 ㅠ.

또 한가지 실망했던것은 IEP관계자들의 무책임한 태도? 였습니다.

한국에서 보았던 일정표와는 달랐지만 중간중간 좋은 계획들이 있던 계획표였지만 그마저도 IEP 관계자들이 귀찮게 생각하면 돌연 취소되어버리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엄연히 어학연수인데 한국학생들과 짝지어주는 것보단 IEP에서 신경을 써서 멘토라고 할까요? 짝을 붙여줘서 서로 한시간씩 대화하는 시간을 갖거나 하는 그런 제도를 추가 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한달동안의 미국생활 정말 인생의 잊지 못할 추억이 될 것이 분명하며 이게기를 통해 자아발전과 어학능력이 많이 향상된 것 같아서 좋습니다. 부족한 저를 지원해주셔서 이런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미국 미시시피 대학교

파견기간 : 2010.07.01~2010.07.31

학 부(과) : 기계정보공학부

성 명 : 정진호

학 년 : 3

인천공항에 오전 7시 30분까지 가야한다니 조금 막막했다. 새벽 3시 정도에 일어나 준비를 하고 아침도 조금 먹고, 아슬아슬하게 버스를 잡아타고, 7시 전에 공항에 도착했다. 인천공항은 처음이었다. 물론 해외여행도 처음이다. 이지환 선생님이 사주는 아침밥도 먹고, 수화물도 부치고, 가방 검사?도 하고, 그렇게 비행기에 탑승했다. 나리타, 달라스를 거쳐 멤피스에 도착을 했는데 거의 30시간은 걸린 듯 하다. 중간 중간 대기시간이 길었기 때문이다. 직항은 없었던 것일까? 씻지도 못하고 비행기에 꼬박 하루를 앉아있는 일은 정말 고역이었다. 멤피스 공항에서는 올미스 티를 입은 학생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학교까지 도착했고, 우린 방에 가서 짐을 풀고 그렇게 첫날을 보냈다.



학교에서 처음으로 보내준 곳은 월마트였다. 우리나라의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였고, 큰 차이점은 찾지 못했지만 다시 한 번 미국 제품은 엄청 크구나 라고 느꼈다. 음료도 2L 짜리가 있고, 화장품들도 한국의 그것과는 크기가 달라 일년도 넘게 쓸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다.

우리가 도착한 주말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 끼어있었다. 미국에서는 중요한 공휴일로 그날의 전후로 해서 휴일을 갖는 것 같았다.(물론 이번엔 일요일이어서 잘은 모르겠다.) 모든 식당도 안 열고, 정적이었다. 낮에는 학교에서 피크닉 시간이 있어 다 같이 모여 식사를 했고, 밤에는 독립기념일을 위한 불꽃놀이를 했다. 학교 안에서 불꽃을 터뜨린다고 해서 시간에 맞춰 그 장소로 갔는데 그 주변 사는 사람들이 다 왔나보다. 마치 우리나라 연휴의 정제된 고속도로처럼 차가 몰려들었다. 사람은 많았지만 이래저래 우리는 자리를 잡고 불꽃놀이를 구경했다. 30분이 넘게 불꽃을 터뜨리는데 뭔가 클라이막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별게 없었다. 그렇게 불꽃놀

이를 구경하고 우리는 독립기념일을 마쳤다.

여기서 금요일 밤을 재밌게 보내기 위해 우리는 다운타운으로 향했다. 좁았다. 다시 봐도 좁았다. 병천 같았다. 하지만 병천에는 없는 술집도 있었고, 클럽도 있었다. 우리는 여기저기 둘러보다가 Library라는 클럽에 들어갔다. 이름부터 독특하고 범상치 않았다. 여기 미국은 만 21세 이상만 술을 마실 수 있었다. 년도로 끊는 것도 아니고 생일이 지나서야 술 먹는 것이 가능하다. 술집에 들어갈 때부터 철저하게 신분증 검사를 했고, 확인이 되면 팔찌를 채워주는데 나이가 안 되는 사람은 다른 색깔의 팔찌를 채워서 술 먹는 것을 감시했다. 술직히 속으로 단속도 안 나올 것 같은 촌구석에서 너무 뽀뽀한 것 아닌가 생각했지만 이런 점은 한국에서도 잘 지켜져야 할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되었다.

어쨌든 그렇게 들어간 클럽은 시끄러웠다. 여기는 세 구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공간은 티비를 보는 바 같은 곳이었고, 두 번째 공간은 춤을 추는 공간, 세 번째는 당구를 치고 간단한 게임같은 것을 하는 공간이었다. 미국의 클럽은 한국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았다. 먼저 드레스 코드에서도 나타났는데, 여자들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한껏 꾸며서 오는 반면, 남자들은 정말 반바지에 남방차림으로 허름하게 입고 오는 것이었다. 그래서 나는 미국이 참 좋구나 하고 생각했다. 그리고 영업시간 또한 차이가 컸다. 한국은 새벽 1시쯤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면, 여기는 새벽 1시면 문을 닫는다는 것이다. 분명 여기 온 한국인들은 1시가 되어 영업을 끝난다는 것에 무언가 시작하지 못하고 끝나버린 기분이 들었을 것이다.



프로그램이 시작하고 첫 주말(7월 10일)엔 Memphis로 가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집을 구경하고, 하드록 카페에 가서 점심을 먹고, 미시시피 강으로 둘러싸인 머드 아일랜드에 가서 시간을 보냈다. 유명한 락큰롤 가수의 집은 크고 훌륭했다. 크게 감정의 동요를 일으킬만한 것들은 없었으나(물론 내가 이 외국인 가수에게 큰 관심이 없었다.) 한 대형가수의 일생을 그 집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은 조금 경이로웠다. 이 집을 구경하고 점심을 먹기 위해 하드록 카페를 갔는데 유명한 곳이란다. 하지만 나에게서는 햄버거 가게, 그래도 배가 너무 고팠던 탓인지 참 맛있었다. 허겁지겁 식사를 하고 빌 스트리트에서 우리는 사진을 마구 찍었다. 학교는 시골 촌구석이었는데 처음으로 본 도시의 모습에 약간 흥분한 감도 없지 않았다. 그렇게 주린 배를 채운 후에는 머드 아일랜드를 갔는데 미시시피 강 한 가운데 조그마한 섬이 있는 그런 모습이었다. 미시시피 강물은 더러웠지만 푸르고 깨끗한 하늘이 그것을 조금 커버해 주는 듯 했다. 거기서도 사진을 찍어대고, 힘든 몸으로 멤피스에서의 일정은 마

무리 되었다.



학교 수업 중 하나는 미국 문화였는데 여기서 다양한 경험을 한 것 같아 좋았다. 이곳의 문화를 쉽게 설명해 주었고, 미시시피 출신 화가의 박물관도 관람했었고, 본인이 직접 제작하는 타일을 만드는 수업도 했었다. 더운 날임에도 불구하고 주변 초등학교를 방문해 지도를 그리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다. 또 영화관에 가서 영화를 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낯설고 어렵기도 했지만 이곳을 이해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된 것 같다.

이 곳 날씨는 참 더웠다. 7월 14일, Lake로 소풍을 갔는데 인공해변, 푸르른 삼림, 쾌적한 공기, 삼박자를 두루 갖춘 곳이었으나 이 날의 날씨가 너무 덥고, 햇빛도 뜨거워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었고, 몸이 기진맥진 상태였다. 나중에 알고 보니 섭씨 42도가 훌쩍 넘었다는 사실에 기온이 그렇게도 올라갈 수 있구나 놀랐지만 혼한 일 이였고, 이런 상태로 한국에 가면 덜 덥다고 느끼지 않을까 생각했다.



이곳에 오기 전 계획되어 있던 New Orleans 여행이 취소되었다는 이야기를 중간에 듣게 되었다. 정말 기대를 많이 갖고 있었는데 아쉬워하던 차에 우리 학교는 미리 계획했고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되어 다시 기대에 부풀었다. 7월 23일, 우리는 금요일 수업을 마치고 New Orleans로 떠나는 차를 탔다. 6시간 동안 차를 타는 것은 고통스러웠지만, 도착하니 이곳은 진정한 도시, 유흥의 거리였다. 그렇게 늦은 시각에 도착했지만 우리는 차려입고 번화가를 향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다. 거리는 악취로 가득했고, 사람들도 다들 술에 취해 멀쩡해 보이지 않았다. 위험한 밤거리였다. 너무 늦은 시각에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적당히 둘러보다 숙소로 돌아갔다. 다음 날 본격적이 투어가 시작되었다. 워킹투어!! French Square를 돌아다니며 가이드의 설명을 듣는 투어였는데 가이드가 참 열정적이다. 두 시간 동안 그렇게 걸어 다니며 얘기를 들었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씨푸드가 유명한 곳이어서 씨푸드 샌드위치를 무려 15달러에 먹고, 우리는 주변 상가를 돌아다니며 구경을 했다. 그렇게 또 몇 시간을 걷고, 박물관도 관람하

고, 고스트 투어가 계획되어 있어 그곳으로 향했다. 나는 고스트 투어라고 해서 귀신의 집에 들어가 등골이 서늘하고 오싹한 공포체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것은 나만의 착각이었다. 워킹 투어와 마찬가지로 그냥 돌아다니며, 가이드의 귀신이야기를 듣는 것이 고스트 투어의 전부였던 것이다. 사람들은 모두 불만이 가득했지만 내색하진 않았다. 가이드 또한 우리의 불만을 아는 듯 했지만 본인에 임무에 완벽히 충실했다. 그렇게 고스트 투어를 끝내고 우리는 저녁을 먹으러 갔다. 고급 레스토랑이었다. 한 사람당 30불은 넘게 나오는 곳이었는데 나는 립을 먹었다. 과하게 탄 것이 흠이었지만, 내 입맛에 맞는 좋은 선택이었고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피로가 조금은 풀리는 듯 했다. 그렇게 밥을 먹고 나니 거의 11시에 가까웠고, 그렇게 New Orleans에서의 둘째 날은 마무리가 되었다. 마지막 날 오전에 우리는 체크아웃을 했는데 보지도 않은 영화 요금이 부과되어 8달러를 내야 했다. 다른 친구들도 비슷하게 전화기만 들어서 5달러의 요금을, 보지도 않은 영화 요금 16달러를 내야 했다. 억울했지만, 어찌할 방법도 없었고, 호텔에선 역시 함부로 건들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 체크아웃을 그렇게 마치고, 우리는 쇼핑을 하러 갔다. 중간에 일이 생겨 대기시간이 길어졌지만, 쇼핑몰에 도착, 우리는 Cafe Du Monde에서 Beignets와 카페오레를 먹고 바로 쇼핑에 들어갔다. 쇼핑 시간은 2시간, 너무 촉박한 시간이었다. 나의 생각보다 싸지 않아서 많이 사진 않았지만, 쇼핑을 마치고 우리는 6시간을 달려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그렇게 기대했던 여행은 끝났고, 조금은 실망하고 힘들었지만 이것 또한 경험이고 추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와서 보니 사진 속에는 실망과 힘들음이 담겨있진 않았고, 좋은 추억거리만 담겨 있었다.



이곳에서의 생활은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었고, 마지막 테스트를 보고, 우리는 아쉬움을 사진을 찍는 것으로 달래야 했다. 먼저 떠나는 친구들이 꽤 있어서 더 아쉬움이 컸지만 금요일 밤 마지막 Farewell Party를 했다. 멤피스의 미시시피 강 선상에서 이루어졌는데 강에서 보는 멤피스 도시의 풍경, 밴드의 공연, 선상에서의 댄스 파티는 정말 마지막의 아쉬움을 달래기에 충분했던 것 같다.

그렇게 모든 것이 끝났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우리는 헤어졌고, 정말 좋은 경험이었다. 다시 이런 기회가 생기지 않을 것 같아 더 뜻 깊은, 나의 값진 추억이 될 것이다.

전반적으로 학교 시설도 그렇고, 편의 제공도 그렇고 좋았지만,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다. 그 중 한 가지만 말하자면, 처음 도착해서 방을 받았는데 같이 간 친구와 룸메이트가 된 것이다. 학부생과 룸메이트가 될 것이라고 들었던 것과 달리 이런 일이 생겨 어떻게 할 지 고민을 하다 방을 바꿔 달라고 말하기로 했다. 내 룸메이트는 말을 해서 먼저 바꿨고, 나는 조금 늦게 만나게 되어 그때 말을 했었다. 시간이 늦어서 기숙사 업무가 끝났고 나는 주말을 기다려야 했다. 처음 본 담당자(1)가 주말을 보낸 후에 이사람(2)에게 가라고 해서 주말을 보낸 후에 이사람(2)에게 갔는데 이사람(2)이 또 저사람(3)에게 가서 말하라고 했다. 그런데 이사람(3)은 그 담당자(1)가 휴가라서 해줄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래서 나는 어이가 없었고, 이 상황이, IEP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참 싫어졌다. 또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이 당연한 것이구나 하고 생각했다. 겉으론 웃지만 속으로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미국에 온 이방인에게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주었다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안타까운 일이었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미국 미시시피 대
파견기간 : 2010. 7.1~2010.7.30
학 부(과) : 컴퓨터 공학부
성 명 : 신나리.
학 년 : 2



7월 1일, 미국을 가기위해 아침 일찍 공항으로 향했다. 아침 일찍 공항에 가는 것은 처음 이었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있어 깜짝 놀랐다. 여름은 해외에 나가는 것에 있어 성수기라는 것이 실감났다. 델러스 공항에서 멤피스로 가는 비행기에서는 내 옆자리에 앉은 군인이었던 흑인 아저씨와 이야기를 나눈 것이 생각이 난다. 그 아저씨는 내가 미시시피 주의 대학으로 어학연수를 간다고 하니 영어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그리고 만난 기념으로 동그란 모양의 테네시 주의 군인 상징이 표시된 기념품을 주셨다. 벌써부터 외국인과 기념품을 주고받다니, 비행의 피로가 싹 가시는 기분이 들었다. 멤피스에 도착해서는 우리들을 픽업 나온 올 미스 학생 두 명을 만났다. 그 학생들의 티셔츠에는 올미스라고 쓰여 있어 한눈에 알아

볼 수 있었다. 가는 내내 대화를 시도했는데, 말이 너무 빨라서 잘 알아듣지 못했다.

내 방에 와서는 룸메이트가 자고 있어 당황스럽긴 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어쩔 수 없었다. 짐을 대충 풀고 잠을 자려는데 방이 너무 추워서 쉽게 잠에 들지 못했다. 남부 지역이라 바깥 날씨가 덥기는 했지만 실내는 냉방을 강하게 해서 오히려 추웠는데, 잘 모르고 담요만 챙겨온 나의 실수였다. 그렇지만 룸메이트가 침대시트와 베개가 1개씩 더 있어 빌려주었기 때문에 감기에 걸리지 않고 잘 잘 수 있었다. 밤에 도착해서 인사를 제대로 못 나눠서 아쉬웠다. 생각했던 것 보다 방은 아주 컸고 룸메이트가 가지고 온 TV, 냉장고, 전자레인지, 다리미가 있어서 신기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될 법도 했는데 다행히 오자마자 잠을 잤기 때문에 별 지장이 없었다.

다음 날은 시험을 보러 갔는데, 가는 길에 대만 학생들을 만났다. 여학생들로만 15명 정도가 왔는데 오늘 아침에 도착하는 바람에 피곤해 보여서 안타까웠다. 시험 보러 도착한 곳은 기숙사에서 10분정도 떨어진 IEP Center였다. 우리는 한 달 동안 그곳에서 수업을 받았다. 도착하니 보이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동양 사람들이었다. 영어열풍이 아시아에 미친 영향은 아주 큰 것 같았다. 타이완 15명을 제외한 나머지 동양인들은 전부 한국인이었다. 한밭대, 계명대, 한기대를 포함하면 50명 정도가 되는 듯싶었다. 오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한국인이 이렇게 많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해서 조금 놀라웠다. 머나먼 미국에 왔는데 한국인을 많이 만나게 돼서 뜻밖이었다. 특히나 내가 속해있는 반에는 15명중 3명을 제외하고는 전부 한국 사람들이라 실망을 금치 못했다. 학교에서 영어회화 강의를 듣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다.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싶었기 때문에 아쉬움이 들었지만 다른 반 친구들과도 잘 지내서 괜찮았다.

시험이 끝나고 식당엘 가서 점심을 먹었다. 그 식당은 JC라고 불렀는데 언제나 뷔페식이고 고기와 빵이 가득했다. 나는 닭을 좋아했는데 언제나 매끼니 마다 닭요리가 나와서 정말 좋았다.

올미스에서 처음 맞이한 주말은 정말 심심했다. 게다가 월요일은 독립기념일인 3일짜리 황금연휴였다. 학교에 적응도 하지 못했고 식당까지 열지 않았는데, 잘 몰랐던 우리는 월마트에 갔을 때 먹을 음식을 충분히 준비하지 못해서 당황스러웠다. 그래도 피자를 시켜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하지만 그 황금연휴 3일이 지루하고 재미없는 시간이었는데, 나중에 학교에 적응을 하고나서는 차라리 우리에게 더 있었으면 하고 느꼈다. 독립기념일은 정말 아무데도 나가지 않고 언니들과 방안에서 보냈다. 화요일은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반 편성을 받았다.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선생님들 소개와 한 달 동안 있을 프로그램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다. 프로그램은 우리가 오기 전에 받았던 일정표와 많이 바뀌어서 실망이었다. 왜냐하면 뉴올리언스 트립이 빠져있었고, 대신에 초등학교에 가서 그림을 그리는 프로그램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분명히 우리가 사전에 받았던 일정표는 올해 7월의 프로그램이었고, 대체된 프로그램은 그중에 몇 가지가 빠져있었기 때문이었다. 학교 측에서 지불



한 돈으로 예산을 짜고 프로그램을 구성했을 텐데, 이렇게 바꾸어 버린 것은 좋지 못한 것 같다. 그렇게 초기에는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실망감이 컸다. 그래도 IEP의 선생님들은 정말 친절하고 재미있는 사람들이었다.

수업은 1교시에는 일상대화에 관해 책에 나온 표현들을 배우고 익히는 시간이었고 2교시에는 미국문화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이었다. 2교시의 책은 매우 지루해 보였고 이름도 American culture라서 재미있는 시간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수업을 듣다 보니 2교시 수업이 훨씬 내게 맞았다. 1교시에는 테이프를 듣고 파트너와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학교 영어회화 수업과 비슷했다.), 2교시에는 미국 문화도 문화지만 선생님의 수업방식이 마음에 들어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미국 돈에 대해서 배우는 시간은 특히나 유익했다. penny, nickel, dime 등등 미국 동전은 종류가 아주 많아서 전부터 헷갈려했기 때문이다. 기말고사를 보기 전에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다. 그런데 아쉬웠던 점은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에 아무런 평가를 듣지 못한 점이다. 선생님의 스타일은 아주 유쾌하고 재미있다. 특이한 것은 선생님 두 분이 미국인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멕시코와 독일출신의 사람들이었다. 미국인 특유의 재미있다 가지고 있고, 선생님의 국적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사는 나라이고 단일민족이라 배웠던 우리나라와는 참 다른 모습이었다.

IEP프로그램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보다도 2박3일일정의 뉴올리언스 여행이었다. 미국은 땅이 너무나도 커서 옥스퍼드에서 뉴올리언스까지는 차로 6시간정도가 걸렸다. 우리들은 차에서 잠을 자거나 수다를 떨거나 편하게 왔는데 운전을 해준 담당자 선생님은 분명 피곤했을 것이다. 첫날에는 간단히 뉴올리언스의 변화한 거리를 둘러보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관광도시답게 거리에는 관광객들로 만원을 이루었다. 하지만 거리에는 오물냄새와 취객들, 호객행위를 하는 종업원들로 붐

뻘었다. 학교가 있는 옥스퍼드에서는 그런광경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신기했다. 오물 냄새가 너무심하고 날도 더워서 빨리 호텔로 들어와 휴식을 취했다. 이튿날에는 걸어서 프렌치 스퀘어를 가이드에게 설명들었다. 해가쨍쨍 내리쬐지는 않았지만 습기와 폭폭찌는 날씨 때문에 힘들었다. 이 날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Hunted history tour 였다. 유령이 나오고 깜짝 놀라는 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실망이 가장 컸다. 한 여자 직원이 20여명이 되는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5개의 지점에서 멈추어 그곳에 얹힌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날은 너무나도 피곤하고 더위에 지쳤기 때문에 정말 힘들었다. 게다가 기대한 것과 다르니 실망까지..... 그 스케줄은 가장 생각하기도 싫은 일정이었다. 그 다음날은 쇼핑을 하고 다시 옥스퍼드로 돌아갔다.

수업과 숙제, 가끔은 IEP프로그램과 한기대 선배들과의 즐거운 시간들로 4주는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다. 4주는 짧은 것 같았지만 그사이 정이 들어서 친구들, 선생님과 헤어짐을 생각하니 눈물이 나왔다. 그래도 미국에 가기 전 인사동에서 한국의 기념품을 몇 가지 준비해 가서 친구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었다. 비싸지는 않지만 이런 소소한 선물을 통해서 친구들이 한국과 나를 더욱 잘 기억해 것이라고 생각하니 뿌듯하기도 했다. 외국에 나갈 때 작은 기념품들은 필수품이라고 생각이 들었다. 프로그램을 잘 마치고 내가 신청한 일본 스탭오버를 통해서 일본에 있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 여행은 일본어 공부를 해야겠다는 동기를 마련해 주기도 했다. 이번 여름 방학은 대학생활에서 두 번째 맞는 여름방학인데 정말 잊을 수 없는 방학을 보냈다고 생각한다. 올미스에서의 추억을 또다시 만들기는 어렵겠지만 두고두고 추억하며 마음속에 되새겨야겠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파견기간 : 2010.07.01~2010.07.31
학 부(과) : 신소재공학과
성 명 : 한샛별
학 년 : 4

외국을 처음 나가 보는 나에게 ole miss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다. 처음 갔을 때는 문화적으로도 너무 다르고,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살고 있어서 약간의 두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생각도 잠시 다양한 문화와 다양한 인종이 섞여서 살고 있기 때문에 머나먼 동양에서 왔다고 해도 특별히 다르게 생각하지 않고 친근하게 대해줬다. 나 또한 그러한 문화에 물들어 버라이어티한 삶이 마냥 즐겁고 재미있었다.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라며 한국인의 우수함과 독특함을 내세우고 있다. 이러한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일까? 다른 민족, 다른 인종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 두려웠던 것이다.

처음에 ole miss에 들어갔을 때 놀랐던 점은 크기이다.

한기대의 5배에 달한다고 듣고 가기는 했지만 정말 엄청 컸다. 그래서 도착한 그 주에 학교를 돌아다니다가 길을 잃어 버려서 뱅뱅 길을 헤매었던 기억이 난다. 정말 짜증났다.

돌아 올 쫘에는 눈을 감고도 길을 찾을 수 있을만큼 익숙해져 있었다.

학교의 크기 말고도 미국에서는 모든 것이 다 컸다. 그래서 극장에 가서 콜라를 large로 시켰다가는 정말 깜짝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large콜라 한 개로 4가족이 다 먹을 수 있을 양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람의 크기도 정말 대단했다. 나의 룸메이트는 비만이였다. 나는 태어나서 이렇게 큰 사람은 처음 봤다. 잠잘 때 싱글 침대에 튀어나 올 정도였다. 아마 미국인들의 주식이 칼로리가 높기 때문에 고도 비만이 많은 것 같다.

나도 한달 동안 2kg이 찌겉 보면 먹는 것만 다른 걸 먹어도 저절로 살이 빠질 듯 싶다.

두 번째로 놀랐던 점은 온도이다.

하루는 lake trip을 갔었는데, 잔디밭 위에서 샌드위치와 음료를 마시면 다과를 즐기고 있었다. 그런데 너무 더워서 땀이 조금 흘렀었는데, 그날 날씨 뉴스를 보니 42도 였다고 한다.

우리가 돌아올 쫘에는 온도가 45도 정도였고, 8월달에는 50도 가량 된다고 한다.

7월달만 있는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대신에 겨울에는 정말 따듯하다고 한다. 기회가 된다면 겨울에 또 가고 싶다.

온도 말이 나와서 말인데, 우리나라는 실내와 실외 온도 차이를 너무 나지 않게 하는 정책이 있는 것으로 안다. 그런데 ole miss의 실내는 너무 추웠다. 그래서 항상 긴팔을 갖고 다녀야 했었다. 강대국이라서 그런지 에너지 소비를 파악하는 것 같다. 물론 시원해서 좋기는 했다. ole miss하면 떠오르는 것이 엄청 추웠던 것과 엄청 뜨거웠던 것이다.

세 번째로 놀랐던 점은 운동복 차림이다.

나는 학교갈 때 항상 단정한 차림으로 가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ole miss 학생들은 나이키

티셔츠에 트레이닝 반바지를 입고 등교를 한다.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러한 차림으로 다닌다. 이러한 옷차림의 의미가 '나 몸매관리 열심히 하는 사람이야~'라는 뜻이란다. 조금 웃기긴 하지만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들 중에 뚱뚱한 사람은 없던걸로 기억한다.

ole miss의 사람들은 대부분 친절했다. 남부사람들의 성격처럼 털털하고 호탕했다.

서양에는 아시아인들에 대한 편견이나 인종차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에게 ole miss사람들의 친절함과 친근함은 고마움으로 다가왔다.

우연히 알게된 옥스퍼드의 lize라는 사람은 자신이 친구들을 소개시켜주고, 영어도 알려주고, 우리들을 재미있게 해줬다. 정말 유머러스한 사람이었다.

lize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들 유머러스하고 친절해서 너무 좋았다.

그래서 나에게 든 생각은 한국에 가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해주고,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외국인들에게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학교 수업시간에 각자 나라에 존재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내가 외국에서 당하기 싫었던 약간의 인종차별을 나는 우리나라에 살고있는 외국인들에게 차별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쑥스러웠다. 앞으로는 좀더 글로벌한 사고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ole miss는 약간 시골이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투덜 거렸는데, 이곳의 사람들은 너무 순박하고 착했다. 영어를 배우러 간 것이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소월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차근차근 들어주고 천천히 말해주는 배려를 해주었다. 너무 그리운 사람들이다.

한국에 돌아와서 제일 그리운 것은 johnson commons(학교식당)이다. 처음에는 음식이 입맛에 안맞고 짜고 느끼했는데, 그런것도 잠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깐 너무 맛있고 엄청 많이 먹었다. 미국에는 우리나라처럼 전통음식이라고 할 것이 없고 우리가 흔히 간식으로 먹는 치킨, 피자, 샐러드, 샌드위치와 같은 것을 주식으로 먹고 있다. 간식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먹어도 먹어도 허기지는 느낌이 들었다.

또 그리운 것은 야외 수영장.

어린시절 이후에 야외수영장을 처음 가본 것이라서 너무 재미있고 즐거웠다. 물론 물에 소독약을 너무 넣어서 피부에 알러지가 생기는 했지만 어린시절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서 추억에 잠기었다.

IEP학교에 다니면서 타이완친구들 베네수엘라친구들 그리스 친구들 파나마친구 에콰도르친구 브라질 친구들을 만들었는데, 다양한 인종과 섞여서 나이상관없이 친구처럼 지내니 너무 재미있었다. 가기 전에는 1달동안만 지내는 데 정이 많이 들겠나 싶었는데, 프로그램을 마치고 헤어지는 날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다. 지금도 너무 보고싶은 친구들이다.

다양한 나라의 친구들을 만들고 다양한 문화를 경험해 볼 수 있는 뜻깊은 경험이었다.

그리고 ole miss로 가게 된 것이 큰 행운이라는 생각을 한다.

정말 다시 가고 싶고, 그립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파견기간 :
학 부(과) : 산업경영학부
성 명 : 신나래
학 년 : 4

미국이라는 나라에 너무나 가고 싶은 마음에 일주일간 자기소개와 여러 면접 질문과 덤으로 토익스피킹 시험에 대해 준비했었다. 두 난관을 함께 준비하면서 절실한 영어의 필요성과 내 실력의 부족함 등 많은 것을 깨달았고 조금씩 영어라는 벽의 현실에 부딪쳐 허덕이고 고민했다. 그리고 보게된 미국 단기어학연수 면접. 너무나 기대가 컸던 만큼 자기소개라는 하나의 질문에도 별별 떨며 대답을 했다. "wait a minute!"이라는 말만 반복하며 내가 준비한 말이 무엇인지, 무슨 말을 더 해야하는지.. 머릿 속은 온통 복잡하기만 했고 너무나 떨며 대답했지만 운이 좋게도 그날 저녁 합격 전화를 받을 수 있었다.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핸드폰 앞에서만 계속 기다린 보람이 있었다. 그렇게 난 미국 어학연수에 뽑혔고 미국 미시시피 대학이라는 곳에서 이렇게 한달을 보내게 되었다.

대략 15시간이라는 긴 시간을 공항에서 한기대 학생들과 함께 보내면서 우리는 긴 비행시간의 지루함과 함께 새롭게 앞에 펼쳐질 미국의 문화에 크게 들떠 있었다. 전에 어학연수를 다녀온 친구들의 경험담, 주의사항 등의 이야기를 서로 말해주며 그렇게 긴 비행시간은 끝났다.

그리고서 밤늦게 도착한 미시시피 대학교의 기숙사는 기대이상이었다. 한기대의 보통 기숙사의 2배의 크기에 깔끔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미시시피 대학교의 학부생과 룸메이트를 맺어주셔서 너무나 좋았다.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로였고 특히나 나의 룸메이트는 흑인이며 교육학을 전공하는 대학원 생이었는데 영어를 못하는 나에게 먼저 질문해주고 먼저 가족 사진을 보여주며 옆에서 쪼그리고 티비를 엿보고 있는 동양인 학생인 나에게 그 티비쇼에 대해 설명해 주는 등의 너무나 친절한 호의를 보여 기숙사에서의 생활은 너무 좋았다. 함께 수업을 듣고있는 다른 대학교 학생들이 계명대와 한밭대 친구들은 대부분이 같은 학교 학생들끼리 룸메이트를 하고 있었다. 그 친구들에 비하면 우리의 생활은 영어를 늘리거나 더 미국 생활을 체험하기에 너무나 좋았다.

하지만 나의 통로에는 내 룸메와 나를 제외하고는 모두 백인 여학생들이었다. 나는 너무나 예쁘게 방을 꾸며놓은 그들 방을 열어놓은 문틈으로 바라보며 신기해했지만 그들은 그게 많이 싫었던 것 같다. 몇번 힐끔 본 후로는 내가 지나가면 이상한 소리

를 냈다. 그래서 그 후로는 앞만 보고 걸었다. 이런 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미시시피 대학에서 느낀 인종에 대한 감정은 백인에 대한 비호감과 흑인에 대한 큰 호감도라는 인식의 변화를 겪었다. 백인들은 굉장히 꾸미는걸 좋아하고 인종 차별적인 행동들을 가끔하지만 흑인들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나면 늘 웃어주고 먼저 웃어주고 말거는 등의 기분 좋은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미국 남부라서 흑인이 더 많고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있다고 들었지만 너무나 좋은 친구들이었다.

하지만 기숙사에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너무나 추운 방이었다. 방틈으로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밤의 차가운 공기는 아무 준비없이 왔던 우리들에게는 큰 고통이었다. 여름이라서 팬츠를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담요하나 들고갔는데 담요 두개를 덮어도 잠자리는 중간에 한두번 씩 추워서 깰만큼 힘들었다. 만약 다음번에 가는 학생들이 있다면 꼭 두꺼운 담요를 챙겨가라고 말을 전해주고 싶다. 월마트에서싼 가격에 구매가능하긴 하지만 집에 버릴 담요가 있다면 꼭 가져가서 사용했으면 좋겠다.

처음 며칠간은 수업을 하지 않고 자신의 실력 테스트와 아이디 카드 만드는 등의 여러일을 하였다. 이곳에서는 우리외에도 많은 다른 사람들과 수업을 같이 듣게되는데 예를 들면, 한발대 , 계명대 학생들, 베네수엘라 고등학생들, 남미 학생들, 타이완 대학생 등이 있다. 처음에는 그들과 우리를 다른 분류라고 생각하고 좀 배척하는 경향이 있었는데 다들 섞여서 며칠 수업을 듣다보면 정말 친한 언니동생이 되어있다. 특히나 타이완 동생들은 한류열풍이라는 말이 정말 실감 날 정도로 한국 가수들과 프로그램을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함께 "강호동, 강심장, 소녀시대, 빅뱅" 등을 이야기 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한글에 관심이 많아서 서로의 언어를 가르쳐주며 늘 웃음 꽃을 피웠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너무나 좋으셨다. 늘 "굿~"을 외쳐주시며 영어에 자신감을 느끼게 해주셨고 늘 친절하셨다. 하지만 수업은 좀 많이 지루했다. 수업이 시작한지 며칠 후부터 수업이 너무나 지루하다고 모두들 투덜대기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 수업들이 참 도움이 된듯 하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 특히나 듣기 실력이 부족한 나는 첫 수업시간에 선생님의 말을 알아 듣는게 너무 힘들었다. 다른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잘 듣고 있는데 나는 왜 못알아 듣는것인지..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었지만 며칠동안 열심히 들으려고 노력한 덕분에 요즘에는 똑바른 발음은 웬만큼 다 알아 듣는다. 하지만 이곳이 남부라서 사투리가 있다고 하던데.. 특히나 흑인들의 발음은 알아듣기가 어려운데 이런 몇몇 어려움만 제외하면 영어를 말하는데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듣기 실력도 많이 늘은거 같아 즐겁고 보람찬 수업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 준비한 호수 구경이라던가 여러 프로그램들이 많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큰 기대를 하고서 방문한 여러 유명 장소들에 가면 선생님들은 우리를 그냥 풀어놓고 자신들끼리 자리에 앉아 수다떨기 바빴다. 우리는 우리끼리 수다떨고 있어서 구경하고 모이기로 한 장소에 오는 등의 성의없는 선생님들의 행동은 눈살

을 찌뿌리게 했다. 그리고 좀더 추가되었으면 했던 프로그램은 외국인 학생들과의 프로그램이다. 이곳에서 진짜 학부생들과 대화하는 일은 우리가 먼저 말을 걸어서 잠시 대화하는것 빼고는 많이 힘들다. 타이완 학생들과 서로 안되는 영어를 섞어가며 이상한 발음으로 대화하는 것 외에는 미국인들과의 만남의 시간이 많이 부족했다. 만약 더 좋은 프로그램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말해보라면 한국 학생 한명당 미국인 대학생 멘토를 한명씩 붙여주는것도 참 좋은 방법인거 같다. 다니다보면 한국학생들끼리 모여서 다니고 끼리끼리만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다. 먼저 나서지 못하는 우리의 잘못도 있지만 이런 프로그램이 개설된다면 학생들의 실력이 훨씬 높아질 듯 하다. 그리고 또하나 원하는게 있다면 '발음교정'프로그램이다. 나같은 경우에는 말을 할려고 노력하고 문법에 맞게 대화를 시도한다 해도 발음이 좋지않아 외국인들이 못알아 듣는 경우가 많았다. 만약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 포함된다면 다른 학생들에게도 좋을 거 같다. 그래서 나는 한국에 가면 바로 발음교정 수업을 들을 예정이다. 지금 부푼 이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발음교정하며 영어실력을 쌓아 나아간다면 이번 단기 어학연수가 정말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할 날이 곧 올 것 같다.

미시시피 대학의 식사는 너무나 좋았다. 학교에서 한식을 먹으면 금새 배가 꺼지고 먹은 듯 하지 않은 느낌일 때가 많았는데 이곳은 진수성찬이었다. 한끼에 7달러 이상이라고 하던데 우리가 먹고싶은 음식들을 다 골라 먹을 수 있었고 많은 종류의 음식들이 있어서 좋았다. 하지만 좀 아쉬웠던건 밥을 먹을 수 있는 카드에 횟수가 50회 뿐이라는 것이다. 한달동안 먹어야하는데 3끼를 다 먹는데 어떻게 50회만 줄 수가 있는건지..나중에 가서는 하루에 2끼만 먹었다. 아침일찍 일어나 아침을 챙겨 먹고 점심은 굶고 저녁까지 배고픔을 참다가 저녁을 포식하고.. 이점이 좀 아쉬웠다. 하지만 카드에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60\$ 덕에 스타벅스에서 커피도 맘껏 마시고 기숙사에서 목이 마를때는 아침에 식당갈때까지 참지 않고 바로 1층 홀에 내려가 음료수나 물을 뽑아 먹을 수 있어 좋았다. 이곳은 특별히 매점이라고 할만한 곳이 없어서 학교 버스를 타고 월마트에 가지 않는 이상 물건을 사는것이 굉장히 힘들어 이 카드는 참 요긴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운동시설이 잘되어있다, 학교 안에 많이 크지는 않지만 실내 수영장 있어서 학생들끼리 수영장에 가서 수영도 하고 헬스, 테니스 등을 치며 나는 테니스라는 새로운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게 되었고 초등학교 시절 이후로 가지 못한 수영장에 감으로써 수영에 취미도 붙고 운동도 하게 되어 뿌듯했다. 한국에 가면 테니스가 취미이신 아버지를 따라서 정기적으로 테니스장에 가서 배울 예정이다. 미시시피는 무료한 나의 삶에 새로운 취미를 하나 붙여준 좋은 대학교이다. 그리고 25일간의 긴 기다림 끝에 가게 된 뉴올리언즈! 진심으로 우리학교 학생들은 뉴올리언즈에 갈 생각에 엄청 큰 기대를 걸었었다. 하지만 아이이피 측에서는 담당자가 바뀌게 되어 뉴올리언즈 일정이 취소되었다는 말을 하였다. 우리에게 이것은 청천벽력같은 이야기였다. 그래서 여러 다른 계획도 짜보고 하다가 아이이피 측에

서 우리학교는 미리 이야기가 다 되었기때문에 함께 가게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되었다. 자비로 가고 싶은 사람만 가게 되어있던 한발대 친구들에게는 너무 미안했지만 우리는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고 뉴올리언즈에 갈 생각만 하며 기대에 부푼 시간을 보냈다. 제즈의 도시! 아름다운 도시! 라고 누가 말했던가. 6시간이라는 긴 자동차 행을 보내고서 우리는 너무나 큰 실망감을 가지고 말았다. 밤 11시에서야 도착하게 되었고 다함께 큰 거리에 가게되었는데 더러운 거리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 여기가 제즈 도시인건지 아닌지 알 수없는 그냥 단지 술거리였다. 이렇게 그날 밤을 보내고 다음날 뉴올리언즈 관광을 하였는데 너무나 힘든 하루였다. 2시간동안 가이드를 따라 설명 들었지만 뒤에 있으면 목소리가 들리지않았고 조그마한 남대문 시장같은 작은 마켓에 넣어놓고서는 볼것도 없는데 두시간동안 쇼핑하라고 시키고, 고스트 샵에 간다고 해서 큰 기대를 했는데 그 고스트는 귀신들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고 두시간동안 그 동네에 귀신 이야기를 듣는 일이었다. 아이이피에서 좀 체계적으로 재미있게 내용을 구성했다면 정말 좋은 여행이 되었을 수도 있었는데 이런 허술하고 힘들기만 한 여행계획을 짜준 그들에게 너무나 실망했다는 말을 전하고 싶다.

그리고 한기대 측에 건의하고 싶은게 있다면 계명대와 한발대 학생들은 출석 90% 등의 정해진 수업일수가 없다고 한다. 그래서 이들은 마지막중에 수업을 이틀정도 빠지고 주말을 포함해 4~5일 동안 자신들끼리 시카고 여행등의 계획을 짜서 다녀오는 등의 여행을 다녀왔다. 하지만 우리는 수업일수 채우기 등의 수료를 못하면 돈을 다 물어내야 하는 등의 두려움과 이런 계획을 짤 수 있다는 것을 생각도 못해서 짬나는 시간을 통해 여행을 다녀오지 못한게 아쉽다. 대신 프로그램 이후의 9일동안 여행을 하기는 하지만 취업을 위해 준비할 것이 많은 4학년의 입장에서 이 시간들을 못쓰게 너무나 아쉽다.

미시시피에서의 대학생활은 지루하기도 했지만 참 조용하고 좋은 곳이었다. 한국과는 다르게 습기가 거의 없어서 햇볕은 훨씬 강해도 땀이 나지 않아 다니기에 참 좋았다. 그리고 도서관도 잘되어 있어서 책을 빌리거나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좋았다. 무겁지만 어떻게 해서든 노트북을 들고 오려고 했는데 없어도 틈나는 시간에 도서관에서 컴퓨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불편한 점은 없었다. 특히나 "www.hantype.com"이라는 싸이트가 있는데 이곳에서 한글을 치고 붙여넣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한글이용에는 큰 문제점이 없다.

한주말에는 페인팅봉사를 갔다. 토,일요일에 봉사를 한다고 해서 토요일에 아침 일찍 일어나 아이이피에 갔지만 비가와서 취소가 되었다고 했다. 하지만 미국에 와서 봉사활동이라는 뜻깊은 일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신청하지않았었지만 일요일날도 아이이피에 갔더니 날씨가 좋아서 봉사활동을 한다고 하셨다. 그래서 30분가량을 차를 타고 초등학교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였다. 나는 처음에 세계지도 그리기 페인팅봉사가 우리의 일종의 프로그램인지 알았다. 주말 내내를 이 스케줄로 짜여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한 세계지도 그리기가 아니라 초등학생들을 위한

봉사의 목적이었다는거에 좀 당황스러웠다. 이 주말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쇼핑이라던가 관광등의 다른 일정을 짜주었으면 더 좋았을텐데..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그리고 처음 미시시피 대학교에 왔을 때, 그 주 주말에 아예 식당이 열지 않아서 당황했었다. 우리는 정말 먹을 것이 없었고 결국에는 월마트까지 걸어가서 먹을 것을 사왔다. 월마트는 차를 타고 한번 갔던 적이 있던지라 길을 몰랐던 우리는 헤메다가 한시간 반만에 월마트에 도착하였다. 이때가 가장 많이 새삼해졌던 거 같다. 이 학교는 병천보다 더 심하게도 시내에 절대 우리 힘으로 나갈 수 없기에 월마트가 가장 큰 신세계였다. 특히 총을 마트에서 판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시기한 일이었고 대부분의 사려는 것들은 모두 월마트에서 살 수 있었다. 그리고 한국에 비해서 다른 일상용품들이 싼 편에 속했기 때문에 헤어에센스나 부모님을 위한 비타민 영양제등을 한뭉치 샀다. 한국에 반가격 정도이기 때문이다. 만약 한국에서는 사고싶지만 비싼것을 추천하라면 헤어에센스인 실크테라피나 무지개 문양의 센트룸 비타민을 이 곳 월마트에서 꼭 사가라고 추천하고 싶다. 실크테라피는 150미리가 21불, 센트룸 비타민은 19달러 정도 한다. 정말 싼 가격이다. 그리고 이 곳 기숙사는 한국과 다르다. 특히나 한기대는 절대 이성이 이성동을 출입할 수 없는데 이 곳은 자신의 학생증을 밑에 로비에서 일하는 알에이에게 맡기면 밤 12시까지 출입이 가능하다. 그래서 특히 목금토요일은 복도가 떠들썩 하다. 다른 학생들과는 달리 내 통로는 내 룸메를 제외하고 모두 백인의 예쁜 여학생들이었는데 목요일밤부터는 이성을 마구 데려오고 떠드는 소리가 어찌나 시끄럽던지 잠을 자는데 방해가 되는 정도였다. 하지만 그래도 이 곳 생활이 무척 몸을 피곤하게 하기때문에 잠이 금방들고는 했다.

그리고 이 곳에서 가장 유명한 감기약이 나이켈인데 만약 이곳에서 감기가 걸렸다면 이 약을 추천한다. 먹으면 미친듯이 졸리는 약인데 난 한국에서 친구가 준것을 먹었을때는 그 다음날도 정신을 못차렸었는데 월마트에서 한 나이켈을 먹고서는 정신이 너무 말뚱말뚱해서 미국 친구들이 이상하다고 할 정도였다. 어쨌든간 나는 지금 밤에만 이틀동안 먹고있는데 친구들이 추천해준 약이니 만약 감기에 걸렸다면 먹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그리고 와서 한국인들과만 너무 붙어다니는것은 영어 실력이나 여러 경험면으로 좋지못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내가 같이 다니는 한기대 친구들은 특이나 타이완 친구들이랑 많이 다녔는데 그들 발음도 좋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영어로만 대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럼으로써 자신감도 더 늘고 새로운 나라의 친구들도 생겨서 나중에 그곳으로 여행을 가는 등의 좋은 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나다보면 한국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말을 걸고는 한다.특히 타이완 친구들은 이 학교에 중국어 학과가 있어서 중국어학과 미국인들과 많이 친했다. 한국어학과도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한다. 그렇다면 그들이 먼저 찾아와서 인사하고 아는 척해준다. 하지만 한국인이라서 기회가 좀 적긴하지만 나쁘진 않았다.어떤 한 한기대 친구에게 외국인인데 엄마께서 한국인이라 자신에게 김치가 있

다면서 함께 먹자고 다가온 외국인 친구가 있었다. 그래서 나도 함께 자리를 했었는데 그는 미시시피 대학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주고 어머니께서 해주신 김치와 갈비를 가지고 와서 함께 학교 안에서 맛있게 먹었다. 이런 식으로 그들도 한국에 관심있으면 먼저 말걸어주고 엘리베이터에서 잠시동안이나마 인사하고 대화할 기회도 많다. 자신이 꿈해있으면 안되고 자신있게 도전해야한다. 하지만 이런 제도를 아이이피에서 만들어준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은 아직도 든다. 정말 학생 한 명당 멘토를 붙여주었으면 더 좋겠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미국 미시시피대학
파견기간 : 2010.07.01~2010.07.31
학 부(과) : 컴퓨터 공학부
성 명 : 박선규
학 년 : 3

약 한 달 동안 진행되었던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처음에 갈 때 한 달이라는 기간 때문에 많은 것에 대한 기대는 하지 않았으나, 지금 갔다 온 직후에 듣기능력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처음에 도착하였을 때에는 색다르게 들리는 억양이 처음에는 적응되지 않아서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듣기 힘들었지만, 한 달이라는 연습 기간 동안, 서로 대화하는 과정에서 듣기 실력과 말하기 실력이 향상되었고,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배우며,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여서 좋았습니다. 이제 하나하나 겪은 것을 말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기숙사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갔던 곳이 미국 동남부 지방이기 때문에, 한국보다 더웠습니다. 실외의 온도는 한낮에 거의 40도를 넘나드는 날씨가지만, 실내는 뽕뽕한 에어컨 덕분에 덥진 않았습니다. 기숙사에 침대 매트리스가 오래되었는지 삐걱삐걱 소리가 나고, 가운데가 꺼져 있어서 조금 불편했습니다. 교체가 가능한지 물어봐도 매트리스가 없어서 불가능 하다고 해서 그냥 한 달 동안만 참자는 생각으로 사용했습니다. 에어컨이 매일 뽕뽕하게 가동 되어서, 저녁에는 그렇게 춥지 않았어도, 새벽에 추워서 일정 초반에 자주 깬으며, 중간에 에어컨 통풍구의 절반정도를 막는 방법을 사용해서 추위를 피했으며, 룸메이트는 미국인이고 미시시피 주에 살고 옥스퍼드에서 약 3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살았으며, 룸메이트와의 생활에서는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룸메이트도 방학 기간 동안 계절 학기를 수강해서 바쁘고, 서로의 생활을 존중해 주었기 때문에 불편함은 없었습니다. 건물이 오래되었지만, 더위를 피할 수 있고, 시원해서 크게 불편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다음에 식당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주로 이용했던 식당은 JC라는 식당입니다. 교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기숙사와 IEP건물 사이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지리상으로 이용하기 편했습니다. JC의 식당이 평일에는 아침, 점심, 저녁 3끼 모두 오픈했기 때문에 이용하였으며, 주말에는 아침과 점심을 같이 한 브런치와 저녁 2끼를 하였습니다. 이곳에서 주로 먹었는데, 아침에는 아주 간단하게, 계란과 돼지고기가 나왔고, 점심과 저녁에는 선택이 가능하게 나왔습니다. 점심과 저녁에는 매일 바뀌는 메뉴 3가지와, 피자과 햄버거가 선택이 가능하여, 원하는 식단을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서, 불편한 점이 없었습니다. 딱 한번 불편했다면, 도착한 주에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렇게 3일 연속으로 식당이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이 미국 독립기념일이라서 한꺼번에 같이 쉰 것 같습니다. 토요일은 IEP프로그램에서 준비해 줘서 해결했지만, 일요일과 월요일은 밥을 어디서 어떻게 먹을지 몰라, 해매다가 월마트까지 걸어갔다 온 기억이 있습니다. JC가 운영하지 않는 첫째 주 주말을 제외하고는 편하게 이용했으며 음식 또한 맛있었으며, 뷔페식이라서 음식이 다양해서 선택도 가능했고, 개인의 기호에 맞게 먹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IEP프로그램에 대해서 말하려고 합니다. IEP프로그램에서 매일 수업시간 4시간과 일주일에 두 번의 추가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반 편성하기 전에 간단한 인터뷰를 통해서 반을 편성하였으며, 정규 수업시간 외에 추가 프로그램은 주로 수요일과 토요일에 있었습니다. 개인이 원하면 참석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입니다. 불꽃놀이 축제, 멕시코 음식을 먹고 볼링을 치는 프로그램, 엘비스 프레슬리의 집을 다녀오는 프로그램, 미시시피 강을 가는 프로그램, 초등학교에 가서 지도를 그리는 프로그램, 뉴올리언스 프로그램,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는 프로그램으로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IEP의 정규 수업시간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수업시간이 2시간씩 2개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하나가 문법이나 듣기 연습을 하는 수업과 미국문화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책으로 구성된 수업이었습니다. 수업방식에 대해서는 한국과 너무나도 달라서 새로웠습니다. 한국의 주입식 교육과 달리, 미국은 상호간에 의사소통을 요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주로 선생님이 질문하고 우리가 편하게 대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파트너와 짝을 이루어서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방식인데, 아쉬웠던 점은 14명중에 12명이 한국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로 파트너와 짝을 지어서 하는데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한국의 학원에 왔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으며, 외국인이 좀 더 많았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3개의 대학에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우리학교와 대전에 위치한 한밭대와 대구에 위치한 계명대이고 한국인만 50명 조금 넘었습니다. 한국인이 너무 많아서 프로그램 진행상에 많이 아쉬웠습니다. 전체 인원에서 한국인들의 비율이 절반 정도 될 텐데, IEP 담당자들이 반별로 인원을 조금 조절해 줬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처음에 미국에 도착했을 때 새로운 일정표를 받았습니다. 기대했던 뉴올리언스 여행일정은 사라지고, 페인팅을 하는 프로그램이 대체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가기 전에 사전에 설명해주셨듯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기에,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도 컸습니다. 하지만, 일정 중간쯤에 우리학교만 사전에 돈을 지불했기 때문에 다른 학교와 달리 우리학교와 다른 친구들 몇 명이 함께 뉴올리언스로 간다고 해서 안도했습니다. 뉴올리언스로 가는 길은 6시간동안 차를 타고 갔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국과 다르게 엄청나게 커서, 시간도 오래 걸렸습니다. 금요일 수업이 끝나고 4시 30분에 출발해서 10시 30분쯤에 뉴올리언스에 도착하고, 숙소에서 짐을 풀고 여행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가 생활했던 옥스퍼드와 달리, 이곳은 도심이기 때문에 저녁에도 반짝이며, 불이 꺼지지 않는 모습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지내던 학교는 학교 내의 건물은 6시 전후로 문을 닫고, 교외의 식당도 다운타운 이외에는 9시쯤이면 문을 닫고, 학교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도 저녁 6시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생활하던 곳과 비교가 되어서 많이 놀랐습니다. 저녁에도 반짝이는 불빛을 보면서, 그 다음날 있을 여행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도심을 구경하였습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가 될 일정이 가장 많은 둘째 날, 이날은 투어가 2개가 있었습니다. 이날 일정을 시작하고, 첫 번째 투어는 뉴올리언스의 유명한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해 주는 여행이었습니다. 투어 가이드와 함께 유람선이 있는 가까운 곳에서 시작해서 주변을 두 시간 동안 돌았습니다. 주로 건축물에 대해서 소개해주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투어 중에 찍은 사진입니다.



ST. Louis 성당 건물입니다.

건의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비자문제입니다. 한국에서 3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한기대와 한발대는 비자를 받아서 왔고, 계명대는 비자를 받지 않고 왔습니다. 계명대 친구들과 이야기한 바로는 전자비자라고 해서 미국대사관에서 면접과 인터뷰 및 서류 준비가 일절 없이 신청만으로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비자 준비를 하면서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고, 준비해야 할 서류 또한 많았으며, 또한 금전적으로도 많은 부담이 되었습니다. SEVIS비용과 인터뷰 면접비용, 인터뷰 예약비용을 납부했으며, 저 같은 경우에 집이 또한 멀기 때문에 서울까지 가는 차비와 하루 숙박료까지 포함하면, 50만원이 넘는 돈을 미국 비자 받는 비용으로 납부하였습니다. 이 납부한 돈을 줄 인다면, 학생에게도 많은 부담을 줄여주고, 서류준비에 대한 시간과 스트레스 또한

줄여줄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전자비자로 대체하면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전자비자가 90일 이내에 다시 출국해야 하기 때문에, 한 달 동안 생활하는 저희에게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뉴올리언스 여행입니다. 가기 전에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갔습니다. 미국 미시시피대학의 연수의 꽃은 뉴올리언스 여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갔을 때 축제기간이 아니었는지는 몰라도, 혹은 여행을 계획하고 짠 매니저가 잘못된 여행을 계획하였는지 모르겠지만,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 또한 컸습니다. 대부분의 여행의 일정이 포함된 둘째 날, 2개의 투어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유명한 건축물이나 상징을 나타내는 조형물에 대한 투어였습니다. 이 투어는 가이드 한 분이 뉴올리언스 근처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해 주는 형식이었는데, 오전이라 온도가 그리 높지 않아서 그럭저럭 견딜 만 했습니다. 문제는 두 번째 투어입니다. 두 번째는 고스트 투어라 해서 처음에 듣고 기대할 때는, 건물 한 편에 무서운 장식품들이나 분위기가 무섭게 하는 줄 알았는데, 현실은 아니었습니다. 현실은 2시간동안 걸어 다니면서,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저녁시간까지 늦춰가면서 한 투어였는데, 정말 최악의 투어였습니다. 어린 아이도 아니도, 건물 한쪽 편에서 도로변에서 서서 무서운 이야기를 듣는데, 날씨는 또한 엄청나게 덥지, 배는 고프지, 걸어 다닌다고 다들 불만 또한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거리에는 말들이 많이 다녀서, 말똥냄새까지 진동하는 곳을 2시간이나 걸어 다녔습니다. 또한 거리의 루트 또한 이전 투어에서 걸어 다녔던 곳과 많이 유사했으며, 햇빛이 달궂놓은 더운 거리를 걸어 다니면서 이야기를 듣는 것에 20달러나 지불했다는 사실이 무척이나 안타깝습니다. 인솔자가 돈을 지불하고 온 저희를 봉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올리언스 일정 대부분이 걷는 일정이고, 특별하게 보는 것이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해서 아쉬움이 많이 남는 여행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멋진 것은 없지만, 기억에 남는 것은 거리 공연하는 팀과 거리의 행위예술가들입니다. 거리에서 공연하는 팀은 더운 날씨지만, 보는 이를 즐겁게 만들어 줬으며, 거리에서 그림을 그려주는 사람들, 예술 작품을 만드는 사람들, 거리 예술가들을 보고 새롭게 느껴졌습니다. 재즈의 도시답게 재즈 공연을 직접 볼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했지만, 식당에서 식사를 한번 했는데, 저희가 음식을 먹은 곳은 2층이었고, 2층의 가장자리에서 먹었기에, 소리로만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재즈의 도시에서 재즈공연을 못보고 온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서 계속 걸어 다녔던 점과, 최악의 고스트 투어를 생각한다면, 만약 다음에 새로운 일정을 짜게 된다면 뉴올리언스를 없애고, 다른 일정을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어떤 일정이 포함되어 있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제가 겪은 바로는 기대에 못 미칩니다. 뉴올리언스 말고 다른 곳으로 새로운 일정을 넣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이 있다면 IEP담당자들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담당자들은 학생들에게 친절하게 해 주었지만, 일부의 담당자들의 태도에 불만이 있습니다. 뉴올리언스 여행을 같이 했던 담당자도 시간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모든 학생들

이 제 시간에 약속을 지켜서 모였지만, 개인적인 일로 전체를 기다리게 한 일이 거의 매 시간 약속마다 일어났으며, 여행의 마지막 날 돌아오는 길에, 담당자의 개인적인 일로 전체가 1시간 30분을 넘게 기다렸습니다. 저희에게 약속 시간을 꼭 지키라고 신신당부를 하던 담당자가 본인의 행동에 무책임한지 모르겠습니다.

프로그램에 페인팅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원래 뉴올리언스 여행 일정을 대체하고 새로 생긴 시간이었는데 자원봉사의 개념으로 토요일과 일요일에 양일간 하는 일정이었는데, 초등학생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면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서 신청해서 하였는데, 초등학생은 한 사람도 없고, IEP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그렸는데, 살인적인 더위에 지쳤고 다시는 하기 싫었습니다. 그러던 도중에 프로그램이 중간쯤 지나고, 수업시간의 일부분을 페인팅 자원봉사로 대체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학생들에게 전혀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일방적인 통보뿐이었습니다. 그것도 4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야외에서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햇빛을 막을 수 있게 천막을 치긴 했지만, 그 속에 가만히만 있어도 땀이 뚝뚝 떨어지기 때문과, 또한 한번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는 하기 싫었지만, 참석하지 않으면 결석처리 한다가에, 학교와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참석했습니다. 일정을 임의로 바꿔서 더운 야외로 몰아넣은 담당자들의 태도에 화가 납니다.

미국 미시시피 여행을 통해서 새로운 친구들을 알게 되었고, 그 친구들의 문화를 배울 수 있고, 미국문화에 대해서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어서 개인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좋았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너무 넓어서 더 많은 체험을 하지 못한 점이 조금 아쉬움이 남습니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미국 미시시피대
파견기간 : 2010.07.01 ~ 2010.07.31
학 부(과) : 응용화학공학과
성 명 : 윤선화
학 년 : 4

한 달이라는 시간은 영어를 배우기에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국의 여러 가지 문화를 체험기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파견된 미시시피 대학교는 그 규모가 무척 커서 마지막 오는 날 까지도 학교 구석구석까지는 모두 돌아보지 못할 정도였지만, 학교가 위치하고 있는 타운은 너무 작아 우리가 기대했던 미국의 가게들이나 도시풍경은 볼 수 없었지만, 오히려 그것이 그곳에 있는 미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 질 수 있게 해준 것 같다. 남부에 위치에 있어 최고 더운 날엔 40도를 웃도는 무더위에 시달렸지만, 강의실이나 기숙사의 냉방시설은 무척이나 잘 되어 있어 건물 안에서는 긴팔을 입어야할 정도였다. 그 덕분에 감기도 걸렸지만, 처음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온 학생들만 너무 많을까 봐 걱정이 되었지만 막상 가보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일본, 대만 등 여러 나라에서 온 학생들이 많아 미국문화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 문화들도 많이 배울 수 있었다. 또한 기숙사를 실제 미시시피 대학교의 학생들과 룸메이트가 되어 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우리학교에서도 한번 기숙사 생활을 해보지 않은 나로서는 힘들었지만 새로운 경험이었다. 우리가 파견된 기간은 여름학기 기간이어서 봄이나 가을학기 같은 정규학기처럼 많은 학생이 학교에 상주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쉬웠다. 그리고 가장 좋았던 것은 파견학생 모두 학생번호와 학생증을 부여받아, 실제로 미시시피대 학생들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던 것이었다. 미시시피대학의 체육관 터널센터에는 수영장, 헬스장, 탁구, 스쿼시, 농구, 트렉 등이 있는데, 모두 무료로 매일 이용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또한 도서관에서도 책도 빌려볼 수 있었다. 학교 카페테리아도 뷔페식으로 매일 조금씩 메뉴가 바뀌었는데, 돌아올 즈음엔 한국의 매운 음식이 너무 그립기도 하였지만, 음식이 맛있어서 살도 좀 쥘 것 같다. 학교 카페테리아 JC는 한 끼에 8달러 정도로 실제 학교 학생들은 비싸서 잘 먹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는 미리 학교에서 받은 Meal Plan으로 50끼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파견된 기간이 한 달밖에 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강의 커리큘럼이 체계적으로 짜여 지지 않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일단 처음 레벨테스트부터 형평성이 없었는데, 모든 학생들이 몇 명의 다른 선생님들로부터 Oral test를 받았는데, Written test나 grammar test는 하지 않아서, 레벨을 나누는데 있어서 학생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이 없었고, 실제로 레벨이 뒤죽박죽 나뉘어 졌다. 그리고 오전엔 문법, 오후엔 American Culture라는 제목의 수업을 받았는데, 오후 American Culture시간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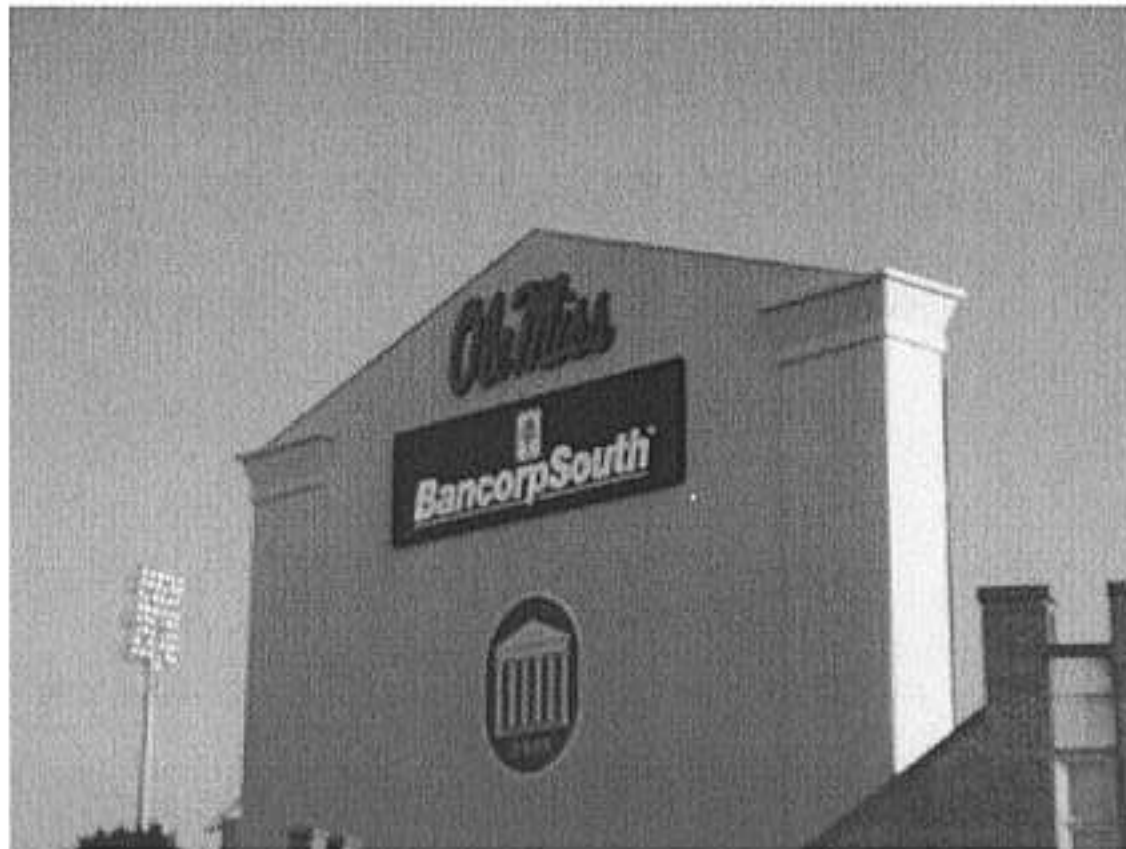
사진, 모자이크를 배우면서 그 것에 대한 에세이를 쓰는 것이었는데, 그것 까지는 괜찮았는데 총 이틀을 모자이크와 콜라주 등을 만드는 데에 수업시간을 이용했다. 도대체 미술시간인지 영어시간인지 미국문화시간인지 구분하기 힘들었다. 또한 미국으로 파견되기 전 받았던 수업 외 활동에 대한 스케줄표가 도착하고 난 후 그곳에서 받은 스케줄과 완전 다르다는 것을 발견 했는데, 심지어 그것마저 아무런 공고 없이 취소된 것이 태반이었다. 기대했던 액티비티가 많았는데, 취소되어서 너무 안타까웠다.

하지만, 우리학교에 정말 감사했던 건 세 번 째 주에 떠난 뉴올리언즈 여행이었다. 사실, 뉴올리언즈 여행은 미시시피대학에 의해 취소된 스케줄이었는데, 우리학교 학생들이 예외적으로 떠날 수 있었다. 다 같이 가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정말 좋은 기회였다. 작은 타운을 떠나 큰 도시를 경험할 수 있었고, 말로만 듣던 미시시피 강을 실제로 눈앞에서 볼 수 있었다. Jazz의 도시라는 명성만큼 도시 여기저기에서 훌륭한 음악을 감상 할 수 있었고, 미시시피 강을 끼고 일어났던 역사적인 일들도 들을 수 있었다. 물론 영어로 들어 백퍼센트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호텔이나 식당 모두 내가 기대했던 것 이상 깨끗하고 좋아서 너무 만족스러웠다. 태풍 카트리나로 유명해진 뉴올리언즈, 말로만 듣던 도시에 내가 있다니 믿겨지지 않았었다. 지금은 많이 복구되어서 우리가 갔던 곳 주변에서는 태풍의 흔적을 찾아 볼 수는 없었지만, 도시 건물에 붙어있던 사진으로 그 당시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 충분한 시간은 아니었지만 Oxford에선 즐기 못했던 쇼핑도 약간 할 수 있어서 좋았다.

돌아오기 전날 마지막 Farewell 파티 땐 근처 도시 멤피스에 가서 보트위에서 저녁을 먹고, 다함께 춤을 추었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고, 모두 다른 국적을 가진 친구들이 함께 같은 마음이 되어 즐기고, 헤어짐을 아쉬워 한다는 것이 너무 기분이 이상하기도 하고 신기하였다. 그사이 정이 들었는지 우는 친구들도 있었고, 다음만남을 기약했지만, 모두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슬펐던 것 같다. 모두 지금까지 다른 환경, 다른 언어를 사용하며 살아왔지만, 그렇게 잘 어울렸 던 것을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모두 나와 많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나와 같은 문화적 배경, 국적을 가진 사람이 아니더라도 모두 같이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깨달을 수 있었다.

처음 떠나기 전엔 한 달이면 짧지만 충분하지라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짧은 시간이었던 것 같다. 정말 언제 한 달이 지나갔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눈 깜빡 할 사이에 지나갔던 것 같다. 떠나기 전엔 4학년이라 많이 부담도 되고 걱정도 되었지만, 막상 와보니 오길 잘했다는 생각이 든다. 투자한 시간과 돈만큼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고, 내가 살던 세상 의외에도 더 넓고 다양한 세상과 사람들이 존재한 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느낄 수 있었다. 역시 백번 듣는 것 보다 한번 경험하는 것이 낫다는 말이 맞는 것 같다. 경험하기 전엔 그 곳에 내가 알지 못하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 세상인 것 같다. 앞으로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기회가 된다면 더 많은 곳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작년에 캐나다를 갔다 왔었는데, 미국에 가기 전엔 같은 North America니까 많은 것들이 서로 비슷하겠

지 하고 막연하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가까운 나라이고 많은 문화를 서로 공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낌과 분위기 사람들의 생활,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영어도 우리나라의 사투리처럼 지역별로 다양한 엑센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미시시피에서 흑인들이 사용하는 언어는 거의 영어의외의 새로운 언어처럼 알아듣기가 정말 힘들었다. 가끔씩 미국인들도 미국 남부 사람들이 사용하는 영어의 엑센트를 알아듣기 힘들 때도 있다고 들어서 너무 신기했다.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미국 대학생들의 학교생활은 어떤지 알 수 있었고 또 실제로 경험 할 수 있었던 좋은 기회 였던 것 같다. 이러한 기회가 나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언제 미국 학생들과 같이 기숙사를 써보고 함께 캠퍼스를 다니면서 공부해 볼 경험을 할 수 있었을까. 지난 한 달의 간의 경험은 나의 인생에 있어 평생 기억에 남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 세계의 여러나라에서 더 많은 경험을 해보고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보고 싶다.



‘ Ole Miss - The University of Mississippi의 또 다른 이름이다. Ole Miss는 많은 사람들이 알다시피 미식축구로 유명하다. 이 사진은 경기장의 일부 ’



‘ Grove, Ole Miss는 작은 타운에 위치해 있는 만큼 자연친화적이다. 이 학교 잔디밭 Grove엔 많은 다람쥐들이 살고 있다. 우리는 이 Grove에서 첫째 주에 환영 피크닉을 했고, 미국독립기념일을 맞이하여 공연을 보았다 ’



‘ 불링과 멕시칸음식점, Ole Miss에서 만난 대만, 파나마, 베네수엘라, 에콰도르에서 온 친구들 ’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미국 미시시피대
파견기간 : 2010.07.01~07.31
학 부(과) : 응용화학공학과
성 명 : 우자영
학 년 : 4

처음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을 지원할 때 미국을 지원한 이유는 단순히 미국여행을 하고 싶었던 목적에 있었다. 4학년 여름방학이 보통 남들에게는 마지막으로 취업 전 스펙을 쌓는 기회, 혹은 모자란 학점을 보충하는 시간으로 많이 여겨지지만 나에게는 한국이 아닌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미국에 몇 몇 도시를 여행해 본 적이 있지만 서부지역만 가봤던 지라 남부에 대해선 아는 바도 없고 솔직히 별로 관심도 없었다. 일본 나리타 공항과 달라스를 경유해서 멤피스 공항으로 가는 멀고 긴 여정에 지쳐있던 중 한 흑인 여자를 만났다. 어디를 가냐고 묻길래 미시시피대학에 간다고 하니깐 거기에 갈 곳이라곤 월마트 밖에 없다고 웃으며 말했다. 설마 농담이겠거니 하면서 다시 정말이냐고 되묻자 정말 아무것도 없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기대도 별로 없었지만 그런 얘기를 듣고 나자 도착하기 전부터 더욱 암울해졌다. 멤피스 공항에서 차로 1시간 반가량 이동해서 자정이 되어서야 기숙사에 도착했다. 우리는 모두 외국인 룸메이트와 방을 함께 썼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대학교에서 온 한국 학생들은 대학에서 신청을 늦게 해서 룸메이트가 없거나 한국 학생들끼리 방을 같이 써야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학교 학생들은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특히 내 룸메이트는 미시시피에서 태어난 흑인이었는데 나이도 나와 동갑인데다 성격이 무척 시원시원하고 친절해서 olemiss에서 있는 한 달 동안 여러모로 나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다. 처음 도착했을 때가 독립기념일이라서 약 3일가량을 그냥 기숙사에서 심심하게

보냈는데 그 때는 뭘 해야할 지 어디를 가야할지 몰라서 시간만 아깝게 흘러 보냈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쉬웠다. 그 때의 휴일이 모든 프로그램 후에 있었다면 더 재미있고 귀중하게 보냈을 텐데 말이다. 4일 째 되는 날 레벨테스트를 하고 수요일이 되어서야 수업을 듣게 되었다. 오전은 주로 문법위주의, 오후엔 미국문화에 대한 수업을 들었다. 솔직히 문법 수업은 1년 어학연수를 다녀온 나에게는 조금 지루

한 점도 없지 않았지만 미국 문화는 대학에서 듣는 강의처럼 토론 위주의 수업이어서 정말 미국대학생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 수업을 듣는 데 있어서 내 룸메이트가 튜터 역할을 해주었다. 처음에 묻지도 않았는데 미국에 있는 흑인들의 역사에 대해 들려주었는데 딱 며칠 뒤에 그 내용에 대해 수업시간에 배워서 더욱 이해하기가 쉬웠다. 과제나 프리젠테이션이



프로그램 후반부에 많이 있어서 약간 벅찬 감이 있긴 했지만 덕분에 너무 놀면서 시간을 보내지 않았던 것 같다. 그곳에서 함께 수업을 듣던 클래스메이트들은 베네수엘라, 그리스, 일본에서 온 고등학생들, 대만, 브라질에서 온 내 나이또래의 학생들과 다른 대학교에서 온

한국 학생들이 있었다. 그 중에 한 명인 일본인 친구는 10년을 싱가포르에서 살면서 영어를 익혀서 그런지 완벽한 미국 억양의 영어를 능수능란하게 구사했다. 모두들 진지하고 열정적인 자세로 수업에 임했고 거의 수업에 빠지는 일이 없는 착실한 학생들이었고 마지막에 헤어질 때는 모두가 아쉬워하는 정도 많은 친구들이었다. 처음에는 낯설게만 들렸던 선생님의 남부의 억양도 나중에는 신경이 쓰이지 않을 정도로 적응되었다. 수업시간 틈틈이 다양한 활동, 예를 들어 남부지방의 생활방식 또는 빈부 차이를 직접 보기위해 차를 타고 Oxford에서 Pontotoc으로 이동해서 그곳에 있는 박물관 견학을 하기도 했고, 미국과 각자 자기 나라 문화를 비교하면서 자기 생각을 타일에 그려서 굽는 활동, 미시시피대학교 학부생들과 일대일 파트너를 지어서 서로의 문화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 등의 활동들이 강의실에서만 간혀 있는 단조로움을 벗어나게 했다. 같은 레벨이라도 반마다 약간씩 수업방식도 달랐는데 리스닝 테스트를 CD플레이어를 재생시켜 같은 문장을 반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한 편 보여주고 그 회에 해당하는 10여개의 질문에 답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다른 나라 학생들에 비해 한국 학생들은 약간 이해하는데 어려워하는 면이 있었지만 내 생각에 이것이 훨씬 재미있고 실용적인 방법인 것 같아서 기억에 남았다.

그리고 IEP에서 우리학교 학생들만을 위해서 따로 계획한 뉴올리언즈 여행도 잊을 수 없다. 오리엔테이션 때 우리가 출국 전 알고 있던 많은 활동들이 취소되어서 아쉬워했는데 그 중에서도 뉴올리언즈 여행은 한국학생들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안타까워했었다. 그러나 우리는 운이 좋게도 대학에서 먼저 요청을 해서 예정되어있던 주보다 한 주 늦춰진 다음 주에 갈 수 있었다. 우리학교학생들 10명과 다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서 온 6명의 사람들과 함께 2박3일 동안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뉴올리언즈는 카트리나 피해 이후 완전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역시



관광도시답게 미국 내에서 찾아온 많은 사람들로 어딜 가나 붐볐다. 길을 걷다 보면 들리는 수준급의 악기 연주 또는 가수 같은 가창력에 한두 번 놀란 게 아니었다. 레스토랑에 앉아서 재즈의 선율을 들으면서 식사를 하고 Oxford에서는 볼 수 없는 반짝반짝한 간판이 가득 찬

밤거리를 걸으면서 또 다른 미국의 매력에 푹 빠졌다.

모두를 행복하게 했던 뷔페식 학교 식당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미국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햄버거, 피자, 치킨을 비롯해 타코나 부리토 또는 철판 볶음밥같은 다른 나라 음식도 때에 따라 나와서 우리를 행복하게 했고 다양한 샐러드와 과일, 달콤한 디저트는 뿌리치기 힘든 유혹이었고 결국 우리들 대부분은 학기가 끝날 때 쯤 몸무게가 늘어있었다.

저녁에 과제가 많지 않을 때는 학교 안에 각종 운동시설들이 있는 터너센터에 가서 운동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수영장, 피트니스센터, 농구코트, 조깅트랙 탁구장 등등 모든 시설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서 도시에서 멀리 떨어져있는 생활의 단점을 보충해주었다. 또 다른 문화 생활으로는 movie night이라고 해서 IEP학생들 모두 각자 보고 싶은 영화를 보게 해주었다. 내가 본 knight and day는 헐리웃 영화라서 그런지 다행히 자막이 없이도 무난하게 알아들을 수 있었다. 시골이라서 문화생활을 할 기회가 적은 반면에 대도시에 비해 물가가 낮다는 장점도 있었다.

외국에서는 금요일밤에 방에만 있으면 정말 지루한 애라고 생각할 정도로 금요일은 파티에 간다든지 뭔가 나가서 재미있게 보내야 할 것만 같은 느낌이 들어 우리도 미국문화를 직접 느껴보기 위해서 금요일 밤에 square에 가서 맥주 한 잔씩 하면서



서 놀기도 했다. 작은 동네라서 거의 모두들 서로 친구의 친구 혹은 건너 건너 아는 사이인 그들 가운데 그 곳에서는 보기 힘든 동양인인 우리를 낯설어하기도 했지만 먼저 다가와서 말을 건네기도 하고 함께 사진도 찍으며 우리에게 귀여운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었다. 우리나라말로 "Hello"는 어떻게 하느냐며 간단한 인사말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에서 외국인을 만났을 때 그냥 신기하게 쳐다보고 지나쳤던 내 모습과 비교해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오픈마인드인지 다시금 느

끼게 되었다.

무료하게만 느껴졌던 olemiss에서의 생활을 1주일 정도 남았을 때는 떠나기가 너무 아쉽고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서 다시 처음으로 되돌리고 싶을 정도였다. 아직도 더 해보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 마지막 프레젠테이션과 기말고사가 빠듯하게 짜여있어서 끝나자마자 olemiss를 떠나게 된 것이 가장 아쉬웠다. 그리고 짧은 한 달 사이에 얼마나 친해졌을까 싶었지만 막상 헤어질 때 다들 눈물을 흘리고 서로 아쉬워하는 모습에 나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지는 걸 느꼈다. 예전과는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 서로 연락은 주고받을 수 있지만 세계 각국에서 온 만큼 다 함께 만나기는 힘들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함께 있었던 추억들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다. 조금만 걸으면 땀이 나서 불평해야했던 무더운 날씨조차 지금은 너무나 그리워할 만큼 olemiss에서 보낸 이번 여름은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미국 미시시피대학교
파견기간 : 2010.07.01~2010.07.31
학 부(과) : 응용화학공학과
성 명 : 김유진
학 년 : 3

미국에서의 한 달이 끝났다. 생각해 보면 정말 꿈같은 시간이었다.

사실 처음 어학연수에 지원했을 때는 미국을 가고 싶다가 아닌, 그저 남들이 다 가니깐 한번 신청해보자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다. 사실 영어를 실 생활에서 사용해 볼 일이 없어서 나의 영어실력에 대해 생각해 본적이 없었다. 그저 영어교양과목이나 토익에 필요한 문법이나 읽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고 영어 회화의 중요성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그래서 말하게 되면 웬만큼 하겠지 라는 생각에 영어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 했다.

운이 좋게도 미국 미시시피대학에 가게 되었다. 처음에 미국비자를 준비하는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괜히 신청했다고 생각했었다. 같이 가는 사람들도 거의 초면이라 여행 준비하는 것에도 애를 먹고, 가기 전까지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그저 걱정 뿐이었다.

인천공항에서 일본을 거쳐 미국의 달라스, 멤피스 총 3번의 비행을 했어야 했다. 비행시간만 해도 17시간이었고 기다리는 시간까지 해서 꼬박 하루의 시간이 걸려 학교 기숙사에 도착했다. 처음으로 방 번호와 키를 받고 짐을 들고 두근대는 마음으로 방을 찾아갔다. 처음 방으로 가니 남미사람으로 보이는 친구가 나를 매우 환하게 반겨주었다. 근데 영어울렁증... 처음으로 외국인과 말을 길게 하려니 참 어려웠다. 반가워. 몇 살이니. 어디서 왔니. 겨우 할 줄 아는 것은 이 정도였다. 19살 파나마에서 교환학생으로 온 친구였다. 계속 혼자 살던 방에 무턱 들어간 꼴이었는데 매우 반갑게 맞이해줘서 고마웠다. 이름은 엘레아였고 정말 밝은 성격의 친구였다. 파나마는 스페인어를 사용하는데 엘레아의 영어실력은 매우 좋았다. 미국드라마와 팝송으로 영어를 배웠다고 해서 신기하고 멋있었다. 방은 2인실이고 한기대 기숙사의 크기의 두 배정도였는데 에어컨을 너무 틀어서 추울 지경이었다.



기숙사에는 방학임에도 많은 학부생들이 있었다. 온통 주위에서 영어소리가 들리니 처음에는 적응이 안 되어서 당황했지만 곧 익숙해졌다. 지나가다가 복도에서 모르는 사람끼리 인사하는 것도 익숙해지고 학생들이 모두 친절해서 좋았다.

미국에서의 첫 주말은 미국의 독립기념일이어서 3일 동안 거의 아무런 프로그램이 없어 참 지루했다. 그러다 평일이 되서 처음으로 수업을 듣는 곳으로 이동했다. 다행히 같이 온 학교사람들이 같은 기숙사를 이용해서 어려움 없이 수업하는 건물로 향했다. 가자마자 테스트를 하였다. 문제가 주어지면 문제의 대답이 될 수 있는 생각을 영어로 말하는 것이었다. 사실 미국가기 전에 영어 회화 책을 샀는데 대충 훑어보니 무난해 보여서 어려움이 없을 줄 알았다. 그런데 막상 외국인선생님과 대화를 하게 되니 머리가 멍해지고 어떻게 영어로 말해야 하는지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테스트를 끝내니 가장 낮은 반으로 배정되었다. 정말 충격이었다. 같이 온 학교 오빠도 같은 반이 되어서 위로가 되었지만 그 때 영어의 중요성을 최고로 많이 느꼈었다.

다음 날부터 배정된 반에 가서 수업을 했다. 학생마다 수업시간이 달랐는데 나는 아침 8시 수업이라 정말 제시간에 가는 것이 힘들었지만 졸린 눈을 비비며 강의실로 갔다. 가보니 우리 반은 한국인 : 외국인의 비율이 1:1로 총 12명이었다. 미시시피대로 어학연수 온 학생은 총 120명이었고, 다른 대학교에서 온 사람까지 합해 한국인은 총 50명 정도였다. 우리 반에는 브라질, 그리스, 대만, 리비아, 베네수엘라, 한국인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처음에는 외국인이 낯설어 그저 한국 사람들끼리만 말했던 것 같다.

오전수업은 Marta선생님의 회화수업이었다. 그런데 처음에 알파벳 발음과 hi hello 인사말을 가르쳐줘서 정말 당황했다. 그래서 반을 위 레벨로 바꾸는 학생들도 생겨나서, 나중엔 난이도가 높아졌지만 미리 공부를 안 하고 온 것에 대한 후회가 많이 밀려왔다.

오후수업은 Marco의 미국 문화 수업이었다. 난 이 수업이 너무 좋았다. 수업의 난이도도 적당해서 좋았고, 선생님이 학생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서 이 시간으로 인해 영어말하기의 두려움을 많이 떨쳐낼 수 있었고, 긍정적인 선생님이 너무 좋았다.^^



아침식사는 잠이 많아 8시 수업으로 인해 매번 거르고, 점심 저녁은 JC라는 학교식당에서 해결하였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한 끼에 8달러짜리 뷔페식이었다. 피자, 햄버거, 샌드위치, 볶음밥, 치킨, 파스타, 감자튀김, 어니언링, 샐러드, 케이크, 쿠키, 아이스크림, 각종 음료들..내가 다 좋아하는 메뉴들이어서 행복했다. 한국보단 음식들이 기름지고 많이 짜서 처음엔 먹기 힘들었지만 점차 적응해서 항상 푸짐히 먹었다. 결국 3kg이 늘어나 버렸지만..아직도 JC는 그렇다.

평일에는 수업을 듣고, 오후에는 월마트를 가거나 학교에서 주관하는 social programs를 갔다. 월마트까지 학교버스가 운행되어 필요한 물건이 있을 때 쉽게 갈

수 있었다. 미국 오기 전에 미국 물가가 비싸고 마트까지 갈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 부피가 큰 것에서 작은 것까지 한국에서 모두 준비해 왔는데, 마트에서 충분히 구할 수 있어서 괜히 가방 무겁게 가져왔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가도 한국과 비슷했고 오히려 더 저렴하기도 했다.



학교 프로그램에는 볼링, 멕시칸 음식집가기, 호수가기, 타일에 그림 그리기, 영화관가서 영화보기 등 학생들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는 것을 엿볼 수 있었다. 프로그램 중 기억에 남는 것은 주위 도시인 멤피스와 뉴올리언스를 간 기억이다. 멤피스는 학교에서 한 시간 정도 걸렸는데, 가서 엘비스 프레슬



리의 생가도 가보고 학교와는 달리 발전된 도시를 느낄 수 있었다. 뉴올리언스는 차를 타고 장장 여섯 시간 만에 도착했는데 호텔시설도 좋았고, 날씨가 너무 더워서 그때 정말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새로운 경험을 많이 했던 것 같다. 학교가 시골이라 불평하기도 했지만 좋은 학교시설과 학교프로그램으로 덜 지루한 생활을 한 것 같다. 낮에는 40도까지 온도가 올라가서 움직이는 것이 힘들었지만 습도가 그나마 높지 않아서 견딜 만 했다. 학교 내에 있는 실내 수영장에서 수영도 할 수 있어서 더웠던 하루의 피로를 풀고 좋았다.

주말 저녁에는 학교주위의 다운타운에 놀러갔다. 만 21세가 되지 않으면 술을 먹지 못해서 당황했지만 곧 적응했다. 사실 처음엔 외국인들만 있는 술집에 들어가기가 무서웠는데 사람들이 너무 순박해서 전혀 걱정할 것이 없었고 재밌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주 일요일에는 한번 학교 주변에 있는 한인교회에 갔는데 많은 한국 사람들과 한국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다. 생각보다 미시시피대학교에서 학부생으로 있는 한국인들이 많아서 참 반갑고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볼 수 있어서 학교생활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업에서 선생님이 매일 숙제를 내주었고 가끔 퀴즈와 프레젠테이션 발표를 했어

야 했다. 과제를 수행할 때 선생님이 각자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끼리조를 매번 정해주어서 많이 친구들과 친해질 수 있었다. 프레젠테이션을 외국 친구와 만들게 되니 진행되는 속도가 더뎠지만 참 좋은 경험이었다. 처음에 한국인들끼리만 말하던 습관도 나중에는 오히려 외국 친구와의 대화의 빈도가 더 많아졌을 정도로 많이 친해지고 정도 많이 들었다.

기말고사를 보고 많은 어학연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갔다. 인사를 할 때 코끝이 찡했고 눈물이 났다. 비록 한 달이었지만 타지에서 많은 정이 들었던 것 같다. 한국 연예인을 닮았다고 나를 그 연예인 이름으로 불렀던 우리 반 대만친구 kari는 자기 엄마께서 직접 만든 지갑이라고 나에게 선물해 주었다. 정말 감동이었다. 지금까지도 kari와 메일을 주고받고 있다. 정말 값진 인연을 얻은 것 같아 기분이 좋다.



지금 미국을 다녀온 지 일주일 정도가 되어가고 있는데 아직도 그때의 여운이 가시질 않고 그림다. 솔직히 영어실력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되진 않는다. 고작 한 달의 시간이었고 수업시간도 그리 길지 않았으므로. 그러나 영어 말하기의 두려움은 정말 많이 없어진 것 같다. 이제 자연스럽게 먼저 외국인 친구에게 말을 걸 수 있을 것 같다. 미국을 오기 바로 전에 한기대에서 IH동을 사는 외국인 친구와 말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그저 묻는 말에 간단히 대답만하고 웃음으로만 일관했던 것을 생각하면 정말 큰 발전이라 말할 수 있다. 또 정말 많은 특별한 경험을 한 것 같다. 이번 경험으로 인해 좀 더 독립적인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나중에 영어공부를 좀 더 해서 다시 외국에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곳에서의 생활은 아무런 걱정 없이 정말 자유롭고 나에게 아주 좋은 영향을 끼친 것 같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행복했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 같다. 또한 영어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온 것 같다. 이제 미국영화를 보더라도 자막을 안 보고 보려는 노력이라도 하게 되었고, 예전엔 관심 없던 팝송의 가사도 찾아보게 되었다. 실생활에서도 항상 영어에 관심을 가져 어서 영어 실력을 높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곧 다시 영어권 지역으로 오는 비행기에 꼭 오를 것이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많이 신경써주고 지원해 주신 학교 프로그램. 정말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

‘10-1학기 선발 단기어학연수 프로그램 참여 소감문

파견대학 : 미국 미시시피대
파견기간 : 2010.7.1-7.31
학 부(과) : 산업경영학부
성 명 : 김영하
학 년 : 3

미국 미시시피주립대로 어학연수를 떠난 김영하입니다. 7월, 미국에서의 생활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많은 정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어학연수는 시작된지 얼마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으로 어학연수를 떠났었던 사람들을 알 수 없었고 관련한 어떤 정보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떠나는 어학연수라 잘 준비하고 싶어서 인터넷의 여러 곳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했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이미 다녀온 사람으로부터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선생님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지만 여러 학교를 지도하시는 선생님에게 한 사람당 하나의 질문만 하더라도 엄청나기 때문에 이미 다녀온 사람의 조언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저도 다음에 미국으로 가는 사람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돕고 싶습니다.

미국에 와서 제일 먼저 느낀 건 엄청난 크기였습니다. 끝없이 펼쳐질 것 같은 도로와 넓은 하늘, 땅이 좁아서 더 높이 더 높이 건물을 세우는 우리나라와 달리 건물이 낮아서 하늘이 정말 넓어서 좋았습니다.



처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저의 담당이었던 세리선생님을 만났습니다. 제공될 줄 알았던 담요와 이불은 제공되지 않았고 저희가 구입해야했습니다. 예정되어있던 일정에는 쇼핑이 첫주에 계획되어있었기때문에 사지 않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일정이 마지막주로 미뤄져서 불편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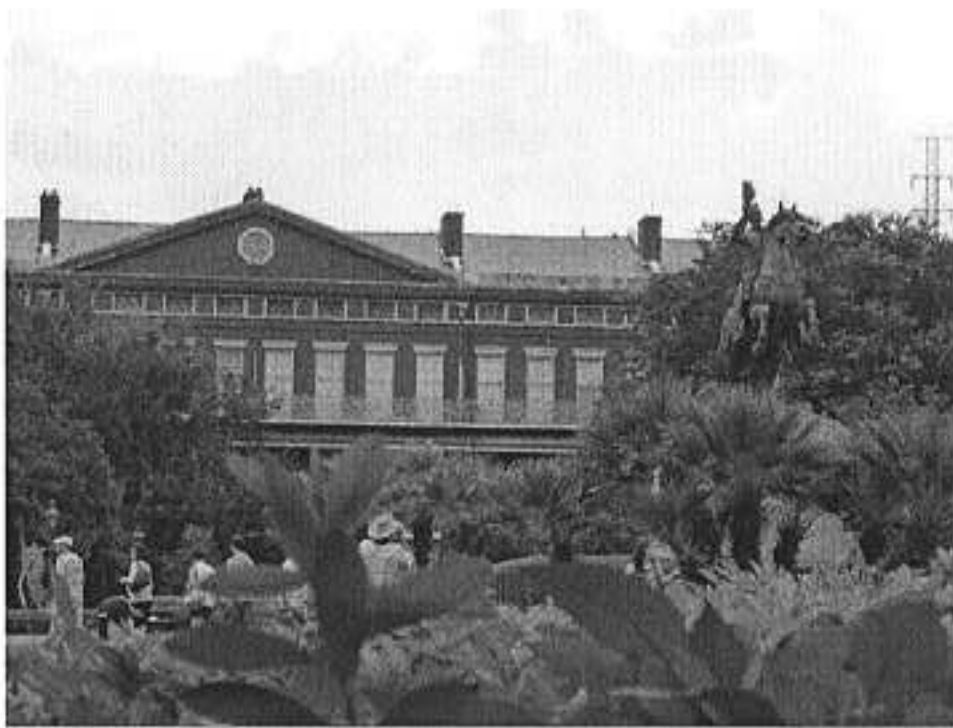
룸메이트도 학부생으로 연결된다고 했지만 실제 제가 만난 사람은 같은 IEP학생이

었고 에콰도르에서 온 24살의 언니였습니다. 실망했지만 미국이라는 나라에 왔다는 기쁨에 모든 게 괜찮았습니다. 건물 안은 에어컨 바람때문에 정말 춥지만 룸메이트 친구로 부터 몇일간 이불을 빌릴 수 있었고 선생님과도 부터도 이전에 쓰던 사람이 남기고 간 담요를 받아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번처럼 이불을 제공받지 못한다면 우리학교사람들이 쓰던 이불을 제공받는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전에 통보받았던 일정과 학교에 와서 통보받은 일정에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여기 와서 통보받은 일정이 이 전에 통보받았던 일정보다 활동적이지 않았고 무엇보다 기대하고 기대했었던 뉴올리언즈 여행이 취소되서 속상했습니다. 선생님께 일정이 변경될 수는 없는지 여쭙봤지만 안될 것 같다는 대답만 들려왔고 가장 높은 반인 advanced반에 배정되었지만 다른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저희반만 책이 한 권이었는데 다른 학교 친구로부터 책값은 150\$을 지불했는데 우리반의 책은 50\$정도밖에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도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일들이었지만 기대가 너무 컸기때문에 실망이 컸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뉴올리언즈를 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정말 너무 기뻐했습니다. 뉴올리언즈를 보내주지않으면 여행사를 통해서라도 가려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뉴올리언즈가 너무 가고 싶었고 또 그래서 너무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뉴올리언즈는 이번 어학연수기간에서 가장 실망스러웠습니다. 하루에 두번의 워킹투어를 해야 했는데 아침에 들었던 뉴올리언즈의 프렌치쿼터의 주요명소를 돌아다녔던 투어는 괜찮았지만 저녁 여섯시에 들었던 고스트투어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하루종일 걸었던 터라 피곤했고 저녁 여섯시라서 배도 고팠습니다. 그런데 늙은 남자한테 팔려간 여자가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는, 장롱에 사람이 토막살인되어있었는데 피가 다음날도 장롱에 묻어있었다는 말도 안되는 괴담들을 늘어놓으면서 걸어다니는데 투어가이드도 이야기를 늘어써 하는 사람이라서 지루하고 배는 고프고 끔찍했습니다. 뉴올리언즈의 모든 일정에는 부가설명없어서 하루종일 그 일정에 끌려다니기만 해서 진정한 뉴올리언즈를 맘껏 즐기지 못한 것 같아 속상합니다. 다음에도 또 뉴올리언즈가 계획된다면 숙소와 차비만 지원되고 자유여행이 뉴올리언즈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합니다. 식사는 겨우 두번 제공되었고 말도안되는 가이드투어는 정말 끔찍합니다. 선생님들은 우리보고 늦지 말라고 계속 주의를 주셨지만 정작 선생님이 늦어서 일정이 1시간 40분이나 딜레이되고 한번 제대로 레스토랑에서 먹을 수 있었던 식사에는 갑자기 선생님들의 친구들까지 와서 먹는데 너무 기가 막혔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모든 일이 정직할 순 없지만 학생들앞에서 대놓고 친구들을 불러서 법인카드를 긁는 건 정말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게 했습니다.



마지막 수업까지 마친 지금 어학연수를 돌아보면서 드는 생각은 좀 더 체험활동이 많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advanced반은 유독 체험활동이 없었습니다. 문화수업에서도 계속 콜라주만들기만 했고 다른 반이 했다는 박물관체험도 시내에 나가서 미션을 수행하는 활동적인 수업이 전혀없었고 거의 매일 에세이를 쓰고 미술만했습니다. 에세이를 많이 써 본건 많은 도움이 되었지만 사진과 콜라주보다 더 미국문화에 가까운걸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advanced반이 가장 높은 반이라서 수준높은 수업을 기대했는데 미술활동에 치우친 문화수업은 실망스러웠습니다.



또 바뀐 일정에서도 선생님들이 귀찮으면 일정이 아무말도 없이 사라지곤 했습니다. 스케이트, potluck파티등 바뀐 일정에서도 또 일정이 아무말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선생님께 안하냐고 물으면 안한다는 말만하면서 웃을뿐이었습니다.

학교에서 받은 일정은 정말 좋았습니다. 바뀐 일정도 그럭저럭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일정이 취소되고 바뀔때마다 실망했고 담당자가 바뀌어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 불편했습니다.

하지만 물론 여기에서 좋았던 점도 많았습니다. 한국인들이 40명정도로 많은 편이었지만 다른 나라 사람들도 많아서 친해질 수 있었고 미국이었기때문에 느낄 수 있었던 것도 많았습니다. 교과서로만 배웠던 페이스북의 열풍, 스마트폰 열풍.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이 얼마나 뒤쳐져있는지를 깨닫게 했고 글로벌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가 아닌 배려와 진심을 배웠습니다.

한 달이 정말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나에게 이런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이 기쁘고 한 달간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느꼈던 불만을 위주로 적었지만 미국은 그 자체만으로도 정말 아름다운 나라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